

김총리 “코로나19 통제 가능한 수준서 관리...경제도 회복 전환점”

“하반기 내수·소비 진작 및 수출·투자 활성화 위한 정책 검토·준비해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코로나19 재유행의 우려가 아직은 남아있지만 국민들께서 방역과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덕분에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큰 타격을 받았던 우리 경제도 수출호조와 투자증가 등으로 회복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 프로젝트 등을 미리 검토·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온 국민이 기



대하는 일상으로의 복귀와 함께 확고한 경제회복·민생안정의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내각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세계적인 백신공급 부족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구축하기로 한 포괄적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은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의 의약품 생산능력과 미국의 기술을 결합해 대량의 백신이 생산·공급되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신종 감염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한·미 간 소통채널 역할을 담당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과 범정부 TF 등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 국내 투자·개발·생산 등 관련 계약과 MOU에 대한 후속 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막을 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참여국의 합의로 ‘서울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2030년 탄소배출 감축목표 연내 상향, 그린 ODA 비중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담은 중요한 정책을 국제사회에 천명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기후대응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후행동 강화 등 이에 상응하는 책무를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주말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힘을 모아 국제사회에 공언한 우리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칼럼] 본능이 막는다고 막아질까

사람이 태어나 먹고 자고 싸는 3가지 본능은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본능이다. 산짐승, 들짐승, 새나 물고기나 곤충이 번식할 때 누가 성교육을 해서 번식했을까.

당연히 인간도 본능은 이성으로 잠재울 수 없는 영역이다. 제 아무리 후천적 교육과 인덕을 중시하더라도 아랫도리의 신비한 본능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본능은 돈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환경적 제한도 다 이겨낸다. 심지어 전쟁중에도 출생률은 유지됐고 가뭄과 질병으로 씨가 마를 것 같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인구증가 현상은 막을 방법이 없었다. 지금이야 저출산으로 온갖 난리를 치지만 사람이 그냥 태어나는 거.

성교와 임신의 과정이 있었고 출산과 육아가 받쳐주었으니 가능한 것이지 아무리 고고한 여인이라도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은 다음에야 남자의 씨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이를 법과 돈과 환경이 억지로 막는다. 막아질까. 천만에 말씀이다. 아무리 성폭력특별법이 강화되어도 음지에서 행해지는 크고 작은 성범죄는 그냥 몰릴 수밖에 없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성들에 대한 사소한 말 한마디도 수치심만 가지면 성추행 범으로 몰리기 십상이나 누가 함부로 말이나 붙일 수 있을까.

회사회식에서도 여직원 동행에 대해 눈치를 보는 현실이 되다 보니 처음부터 합석의 여지가 사라지고 있다.

과연 이 같은 현상이 여권신장이나 남녀평등에 진정한 자양분이 될까. 한국의 성문화가 결과 속이 점점 양면성을 띠고 있다.

점차 황금만능주의로 돈이 모든 걸 해결하고 좌지우지하는 선택의 기준이 되다 보니 개인적인 인간성이나 각자의 자질은 두 번째다.

사람의 성문제는 일시적인 금전으로 결정되고 뒤집어질 문제가 아니라 상호간의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 기본이 되어야 자연스런 육체적 향연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나머지는 각 개인 간의 성향과 체질에 대한 여지가 있는 것이다.

점차 도덕적 해이 현상이 사회 전반에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성의 자유가 자칫 방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민족의 정서에 맞는 개선과 대안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처럼 앞으로 더 개방되고 평등을 가장한 남녀의 개성조차 구분이 어려워진다면 얼마까지 않아 남성도 임신을 해야 평등할 것이라는 주장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5월 27일 톰 49개를 빌려 1만3000명의 성매매를 해 온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일대에서 오피스텔 객실을 빌린 뒤 동남아 국적의 여성 약 80명을 고용,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고 전화로 연락하는 남성들에게 약 1만3000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검거된 것이다.

용인, 이천, 의정부, 군포, 등 경기도 일대 오피스텔 객실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1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성매매 1만3000여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남성의 전화번호 등을 입수해 혐의가 있는 성 매수자도 조사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성매매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매수자가 얼마나 검거되었는지는 한 번도 보도된 적이 없다.

조사결과 작년 8월부터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해왔다는 것인데 성매매 대금으로 평균 17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성매매 여성과 절반씩 나눠가졌다는 것이다.

과는 썰이나 사는 썰이나 어느 한 쪽만으로 성사가 불가능한 성범죄, 경찰은 이용일자, 휴대전화 번호, 성매매 상대 여성의 이름은 물론 자세한 고객 관련 정보도 확보했지만 매수자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은행계좌에 들어있는 5억2000만원도 몰수추진 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이쯤에서 대략 계산해보면 1회 17만원씩 13,000명이면 22억이다. 물론 엄청난 지하경제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성매매를 누가 카드로 긁을까. 당연히 드러난 것만도 막대한 현금이 여성들의 몸값으로 대부분의 남성들이 지출한 것이라는 계산이다.

한국이 합법적인 공장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조선시대부터 기방이 있었고 사창가는 전성터에서도 영영(?)을 해왔다. 한때 성폭력 특별법이 정해졌지만 직업으로 여기며 살아온 여성들에게 별다른 대안이 되지 못했다.

최근까지 지방도시마다 붉은 조명으로 오후 쉬었다가를 외치던 한국의 현실을 막는다고 막아질까. 오피스텔은 물론 일식당, 노래방은 물론 출방 마사지를 병사한 성매매가 여전히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고 있다.

어떻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해 그래 봐야 누가 알아주는가라는 빈정거림이 만연한 현실, 일 년이 아니라 한 달이 다르게 변화하는 성의 타락이 외형적으로 사라진 것 같지만 풍선 효과 마냥 어디든 한곳을 누르면 다른 어딘가는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어쩌다 경찰이 급습이라도 하면 대단한 범죄현장이라도 잠은 마냥 언론은 대서특필한다.

그동안 몰라라 안 잡았을까 그랬다면 업무태만이요 알면서도 방관했다면 직무무기다.

사람이 본능으로 행해지는 그 짓(?)에는 국경도 법의 테두리도 소용없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항문을 막아놓고 자꾸 맛있는 음식을 품위있게 먹으라고 권한다. 언젠가 어디서라도 똥을 싸야 할텐데 죄다 틀어막아놓았다.

자세히 요즘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라 누가 감히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오죽하면 외국에서 여성인형수입이 급증할까.

이러다 인형과 결혼한다거나 짝을 찾지 못해 남녀가 서로 다른 곳을 돌다가 헤어지진 않을까.

지나친 자유도 방종이지만 지나친 규제도 방황이 된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꽃이 뿌리채 나비를 쫓아 다닐 수는 없는 법이다.

어쩌다 세상이 이지경이 되었을까. 얼핏 보면 여권신장과 남녀평등이 자세히 보면 여권의 진정한 가치를 상실하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참된 여성만의 영역을 잃어 가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덕암/김근식

부산시, '제10회 세계장애인대회' 부산 유치 추진

부산시는 내일(3일) 오전 11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제10회 세계장애인대회 부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황광식 한국장애인연맹(DPI) 대표, 김익환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조창용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 겸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임윤태 국제장애인스포츠연맹 회장, 안중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김남희 (사)부산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 회장, 김치용 세계장애인부산대회 추진위원장(현 동의대학교 ICT공과대학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는 국제장애인 조직인 국제장애인연맹(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PI)의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과 함께 '제10회 세계장애인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0회 세계장애인 대회는 오는 2023년 4월 개최되며 150개국에서 4천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장애인부산대회가 성

공적으로 개최되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전 세계 장애인을 위한 소통과 국제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상호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장애인연맹(DPI)은 1981년 '국제장애인의 해'에 설립된 국제단체로 4년마다 세계장애인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연맹에는 현재 전 세계 152개국이 가입해있으며 세계적인 자립개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경제적 개발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참여를 목표로 전 유형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세계장애인대회 유치를 위해 비대면으로 국내외 협력을 이끄는 등 노력해왔다. 시는 이번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글로벌 장애인화도시라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국제관광도시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 일상 시대를 맞아 'K-방역·문화·복지'를 알리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변화한 복지 패러다임을 선보여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07년 제7회 세계장애인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데 이어 국내에서는 부산이 두 번째로 국제적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동안 수도권에 위주로 추진되어 온 장애인 관련 국제행사의 무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부울경 지역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회를 계기로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시의 포용력을 넓혀, 2030 월드엑스포 개최지 결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황광식 한국장애인연맹 회장은 “이번 세계장애인대회 유치를 위한 부산시와 DPI의 협약을 통해 세계 속의 부산이 가지게 될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맞이함과 동시에 메가시티로 발돋움하게 될 전환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한 전세계 장애인을 위한 국제 교류 및 소통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세계장애인대회는 부산시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실천적 대회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4차 산업 첨단기술과 복지와의 만남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이 포용되고 사회전반에 큰 변화를 만들어 내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이번 대회가 글로벌 장애인화도시로 도시 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남경영/기자

문체부·대한체육회, IOC에 서한...“독도 표시 중재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 누리집 내 독도 표시와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1일 “김정배 제2차관 주재로 외교부, 대한체육회와 함께 ‘도쿄올림픽 누리집 내 독도 표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며 “일본의 독도 표시를 시정하도록 하고, 우리의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지난 달 24일 일본올림픽위원회(IOC)에 독도 표시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오늘 추가로 IOC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다”고 전했다.

또한 외교부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남도의회 COP28 특위, 대한민국 유치 선언 환영

문대통령 COP28 유치 선언 환영 성명 발표

경남도의회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성연석)는 지난 5월 30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COP28 대한민국 유치 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COP28 대한민국 유치 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며, 특히 남해안·남중권은 풍부한 국제행사 성공 개최 경험과 오랜기간 민·관·학이 협력하여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선도해 온 준비된 개최지임을 강조했다.

남해안·남중권은 진주·사천·고성·남해·하동·산청 등 경남 6개,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등 전남 6개, 총 12개 시군으로 이뤄져 있으며,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성연석 특위 위원장은 “COP28 대한민국 유치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경남·전

남도 및 도의회와 힘을 합쳐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지난 4월 22일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 유치를 위하여 구성되었

으며, 전남도의회와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등 COP28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최광수/기자

소병훈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증금 3억 주택 임대차계약 월 보증료 36,500원 ... 보증료 부담 크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건의 89.1%가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건의 위험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전세계약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건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까지 신고된 총 5,279건의 사고 가운데 4,703건(89.1%)이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증금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2,200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2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1,971건(37.3%)으로 나타나는 등 약 80%에 달하는 사고가 보증금 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갭투기 대응 시민모임이 발표한 ‘갭투기 피해 설문조사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 갭투기 대응 시민모임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건 피해자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건의 55.6%가 보증금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했으며, 보증금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구간에서 전체 사고의 34.3%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 기준 5천만 원 이하 등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의 전월세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집주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이를 세입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세입자가 집주인 변동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물론, 새로운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에 소 의원은 집주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미리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고, 임차주택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계약체결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대로 보증금 3억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 부담은 크지 않다”며 실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소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보증료율(0.146%)을 기준으로 보증금 금액별 보증료를 추산한 결과 보증금 3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43만 8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27,375원, 세입자는 월 9,125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증금 2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29만 2000원으로 집주인의 월 부담액은 18,250원, 세입자의 월 부담액은 6,083원이었고, 보증금 1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14만 6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9,125원, 세입자는 월 3,042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 부담이 크지 않은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건은 해당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수/기자

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연금형태의 보훈지원금 지급법안' 조속히 통과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주민중화합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에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판상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어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지난 27일 헌재가 이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어, 이용빈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5.18민주공화국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변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 피해자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했고, 5.18 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분들에게 연금 형태의 보훈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5.18 피해자들이 일시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보훈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이중보상이라는 주장과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 14222 광명시 시청로 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美, 한국에 얀센 백신 100만명분 제공...“당초 약속 두배 분량”

미국이 얀센사의 코로나19 백신 100만명 분을 한국에 제공했다고 정부가 30일 밝혔다.

당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원을 약속한 55만명분의 두 배에 달하는 물량이며, 이번 주 내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한 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 군용기가 직접 미국에서 공수해 와 군 관련자와 예비군, 민방위 대원 중심으로 접종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대상·일정 등 접종계획은 중대본 직후에 질병관리청장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얀센 백신은 이미 미군을 포함해서 미국인 1000만여명이 접종을 받았다”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4월 얀센 백신의 사용을 허가했고, 국내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이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하면 되고, 특히 남아공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상 회복을 향한 발걸음이 점차 빨라

지고 있다. 이제 전체 국민 열 분 중 한 분이 1차 접종을 마쳤다”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정부를 믿고, 사전예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최광수/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 추진 ...분양피해.사업지연 막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즉,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이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지분조 개기 등을 통해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구역 대상 후보지(3.29. 선정)에 대해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9.21.(공도공고일)로 고시한 바 있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즉,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이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지분조 개기 등을 통해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구역 대상 후보지(3.29. 선정)에 대해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9.21.(공도공고일)로 고시한 바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2/3)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 신축 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이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보조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열람공고(2021.5.31.~2021.6.14.)하고, 6월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번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신축 다세대주택에서 향후 분양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홍보도 요청했다.

한편,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현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올해 1월 선정된 1차 후보지(기존 구역) 가운데 신설1, 흑석2, 용두1-6 등은 개략 정비계획, 추정분담금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동의의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3월 선정된 2차 후보지(신규구역) 중 상계3, 장위9 2곳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나머지 14곳도 상반기 내에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과 적극 홍보를 통해 분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자치구, LH, SH 등과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마포구, 한샘과 '1기업 1공원 가꾸기' 업무협약 녹색 도시로 전환 박차



마포구는 지난 5월 27일 한샘(대표이사 강승수 회장)과 '1기업 1공원 가꾸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시작으로 구는 '1기업 1공원 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1기업 1공원 가꾸기' 사업은 기업과 지역 내 공원을 1:1로 매칭해 공원에 나무를 심거나 기업과 연계된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나무심기가 기업의 1회성 사회공헌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구의 '5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마포구에서는 식재량을 늘리기 위해 주민 및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나무심기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샘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동참해 사업에 참여했으며 앞으로 구와 협력해 공원 가꾸기 및 나무심기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부영이근린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안흥국 한샘사장은 협약서를 교환한 뒤 기념식수를 실시했다.

이날 한샘임직원 등은 공원 곳곳에 산딸나무 20주, 매화나무 10주, 화살나무 70주 등 총 100주의 나무

를 심어 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마음껏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10년에 걸쳐 추진되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오는 2027년까지 마포구에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목표식재량이었던 47만 그루를 훨씬 웃도는 81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목표량 대비 172%를 초과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올해 1분기에도 11만7141주를 심어 2021년 목표량의 27%를 이미 달성했다.

구에 따르면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를 주춧돌로 삼아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지속적으로 가꾸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민간주도 나무심기'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한샘에서 녹색 마포에 관심을 가지고 공원이 꾸기와 나무심기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부영이근린공원이 더욱 푸른 힐링 공간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감사하다”라며 “'1기업 1공원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공기청정 특별구' 마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내 손 안의 금천, 스마트 관광지도 서비스 개시

문화유산, 체육시설, 도서관, 공원, 축제, 모범음식점 등으로 구성

금천구가 지역의 관광정보를 전자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모바일 웹 기반의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서비스를 6월부터 제공한다.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는 스마트폰을 통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전자지도의 분야별 정보에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고, 변경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금천의 △문화유산 △축제·행사 △체육시설 △도서관 △모범음식점 △숙박시설 △쇼핑센터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사진과 설명자료, 홈페이지 링크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한 건강걷기 등 스탬프 투어 시스템과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온라인 대관예약 페이지를 연결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금천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며, “코로나19로 멈춰 있던 지역사업을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전자지도를 적극 활용하고, 금천만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성기자



송파구, 탄소중립도시의 든든한 밑거름 '제7기 녹색송파위원회 출범'



송파구는 지난 5월 27일, 민·관 환경거버넌스 기구인 '제 7기 녹색송파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녹색송파위원회'는 2008년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송파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출범한 민간 공동참여 방식의 거버넌스 기구다. 환경정책 자문, 정책 발굴,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시민단체, 언론인, 교육기관, 기업, 지역명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제7기 녹색송파위원회는 대기, 수질, 에너지, 재활용, 교육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 61명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최근 기후변화 위기시대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환경문제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7기는 환경관련 풍부한 지식과 관심이 많은 청년위원을 대거 영입

하여 젊고 참신한 송파구민의 차별화된 환경정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2년 동안 자연도시, 송파의제21, 기후변화 등 3개의 분과로 나누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송파구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9월 '송파형 그린뉴딜 탄소중립도시 계획'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여러 방안을 시행 중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제7기 녹색송파위원회의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이 67만 구민이 함께 누리는 환경 선도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며, “앞으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관악구, '2021년 대한민국 혁신기관' 브랜드 대상 수상

관악구가 '2021년 대한민국 혁신 인물(기업/기관)·브랜드 대상'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가 주관한 시상식은, 대한민국의 우수·유망한 인물, 기업, 기관, 브랜드를 발굴해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혁신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만들기'를 핵심가치로 삼고 조직개편, 다양한 혁신정책 시행, 직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혁신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진 성과를 인정받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자치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행정 기반 조성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 ▲주민, 전문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혁신관악청(廳)', '스마트리빙랩' 운영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삼은 '관악S밸리 발굴·육성'과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주민밀착형 '스마트도시관악 조성사업' ▲강감찬 장군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 전략 ▲주민 대표 휴식공간인 '별빛내린천'(도립천) 특화사업 등 행정변화에 발맞춘 혁신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성원기자



동작구, 상도4동 청년·주민창업 공간 열린스튜디오 28일 개소



동작구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청년·주민창업 공간 열린스튜디오(성대로25가길 8)'를 개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열린 스튜디오는 지역 내 청년과 주민에게 창업활동 공간을 제공해 창업가 육성과 함께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립한 시설로 17억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1월 완공했다.

시설은 연면적 226㎡, 지상1~4층 규모이며, 1층은 입주기업 및 주민회의공간, 2층과 3층에는 공유오피스(1:3:5인실)를 조성했고, 주민들을 위한 공유주방과 휴게시설도 함께 배치했다.

더불어, 열린스튜디오의 운영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 상4랑(대표 원용수)'이 맡는다. '협동조합 상4랑은 조합원의 대다수가 상도4동 주민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 본격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28일 오후에 열린 개소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진행했으며, 이창우 동작구청장과 지역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해 열린 스튜디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열린스튜디오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창업가들이 육성될 기대한다.”고 밝히며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은 지금부터 시작으로 액티비티인 상도어울마당과 열린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주민의 활발한 참여가 지속될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상도4동이 지난 2014년 12월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후, 5년간 총 10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골목공원 조성 ▲범죄화재 안전골목 조성 ▲상도어울마당 건립 ▲역사테마둘레길 조성 사업 등을 완료했으며,

이번, 열린 스튜디오 개소를 끝으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다.

최만식기자

인천시, 문화재 등록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시의회, 관계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통해 근대문화유산 보존방안 찾아



인천광역시시는 5월 31일 '인천시 등록문화재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용선 시의원, 조선희 시의원, 이병례 시의원, 오용섭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을 구 제물포구락부로 초청해 등록문화재 등록절차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2019년 12월 25일 시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후 인천지역의 근대건축물 등 근대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필요성이 학계, 언론,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인천시는 지난 3월 9일 2021년 시 등록문화재 등록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130년 이상 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플라타너스로서 개항의 역사를 증언하

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대한민국의 최초 철도인 경인선 시발지로 알려진 "인천역"은 수도권에서 가장 오래된 역으로 인천의 철도 역사를 말해 주고, 인천과 수원을 애환이 담겨있는 "수인선 협궤 객차"와 소래박물관 광장에 전시된 "협궤 증기기관차"를 등록문화재로 발굴해 시 등록문화재 등록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인천이 개항 역사와 함께한 옛 인천항 감문으로 확인된 "인천항 제1부두 축항"에 대한 전문가 현지조사 결과 등록문화재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등록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며, 오는 7월 1일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시설로 "송학동 옛 시장관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시민개방에 맞춰 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를 정착해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백민숙 시 문화유산과장은 "간담회에서 제시한 근대문화유산 보존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문화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등록문화재 인식 및 홍보, 등록문화재 제도 정비, 등록문화재 추가 발굴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서울교통공사, 창립 4주년 맞아 6억 8천만 원 사랑의 열매 기부

작년 말 노·사 공동으로 모은 기부금 전달... 임직원 9,197명 참여

서울교통공사가 공사 창립 4주년을 맞아 '사랑의열매'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직원들이 모은 기부금 6억 8천만 원을 전달했다.

공사와 모금회는 26일 사랑의열매 서울지회에서 김상범 공사 사장, 공사 양대 노조 위원장들과 윤영석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기부금 모금은 노·사 공동으로 총 9,197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였으며, 모금된 기부금은 서울지역 기초수급대상자 등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공사는 작년보다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운수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방역 비용이 늘어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코로나19로 보다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고 노·사가 공동으로 난관을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5월 31일부터 6월 16일까지의 기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고, 그간 매칭그랜트1) 및 급여 끝



전모(기2)로 모은 돈 6천 4백만 원을 6월 중순까지 활용해 결연복지시설을 돕거나 전통신장상품권을 구매해 이웃에게 기부하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사가 공동으로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하며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계양구 희망복지지원단, 저장강박 가구 환경 개선 사업 '힐링하우스 사업' 추진



인천광역시 계양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지난 23일, 27일 이틀에 걸쳐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대한 청소, 정리·정돈, 소독 등을 지원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힐링하우스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힐링하우스'는 계양구 희망복지지원단 특색사업으로 사례관리 대상자 중 장애, 정신질환(저장강박 등), 알코올 의존 등으로 청결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청소, 방역·소독, 폐기물 수거, 집수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대상자는 집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4인 가구로 가구원 2명이 중증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있다. 계양구 희망복지지원단,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 노들담 장애인복지관에서 집안 청소, 폐기물 처리 등을 실시하였으며 계양구보건소 감염병 관리과에서 소독, 방역을 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사랑의 집고쳐주기' 대상자로 선정돼 도배·장판 등의 집수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저장강박은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질환으로 민·관의 협력이 없었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도움을 준 기관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힐링하우스' 사업 실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대상자를 방문하여 청결한 주거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서울특별시, '아리수 미디어 크리에이터' 1기 모집...14일까지

월 최대 80만원의 활동비, 전문가 멘토링, 관련 교육 등 다양한 혜택 제공

건강하고 가치있는 선택, 아리수

제1기 미디어 크리에이터 모집

아리수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서울 거주자 또는 서울 생활권자

활동내용: 아리수의 가치를 담은 영상 콘텐츠 제작(월 5편 내외), 활동비 지급(월 최대 80만원)

응모인원·자격: 유튜브(10), 틱톡(5) 각 채널별 팀 또는 개인

모집기간: 2021.6.1(화) ~ 6.14(일)

합격자 발표: 2021.6.18(금)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arisu.seoul.go.kr) 또는 우송 하단 QR코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을 홍보할 아리수 미디어 크리에이터 1기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이다.

서울에 거주 중이거나 서울 소재 직장, 학교에 다니는 서울생활권자로 영상 제작이 가능한 사람 중, 본인 계정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명 이상 또는 틱톡 팔로워 1,000명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정제과정을 소개할 영상에 담아 홍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리수 미디어 크리에이터 1기'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며, 월 최대 80만원의 활동비, 관련교육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월별 제작 콘텐츠의 개수에 따라 월 최대 8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

다. 유명 유튜버의 영상제작 교육 및 온라인 워크숍, 우수 크리에이터 선발 및 시상 등도 예정되어 있다.

모집 인원은 총 15팀(또는 개인)으로 유튜브와 틱톡 각 채널에서 활동하는 팀 또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제작한 영상 콘텐츠는 크리에이터 개인채널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셜미디어(SNS)에 동시 게시돼 시민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는 6월 14일까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방문해, 공지사항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이 생각하는 아리수의 우수성과 홍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사랑하는 참신하고 개성 있는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구로구가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관할 자치단체로 신고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등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신규·변경·해지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임차인이 공동 서명한 뒤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관할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부여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나 대리인을 통한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 시 원본 서류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PDF, JPG, PNG 등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라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당부했다.

김미성/기자



이재현 서구청장, 공약이행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SA)!

인천 서구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한국매니페스트도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1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등급(SA)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서구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 실시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 평가'에서 서구 역사상 최초로 전국 1위를 한 데 이어진 쾌거다.

서구는 그동안 공약사항을 빠짐없이 추진력 있게 실행하는 한편,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온 바 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공약 이행 평가단'을 구성해 주민이 직접 공약사항을 점검하는 주민참여 환경을 만들었다.

아울러 홈페이지상에 공약 이행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공약 지도'와 함께 분기별 공약 이행 추진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한편 서구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민선 7기 50개의 공약 사업 중 23개를 완료했으며, 전반적으로 80.3%의 높은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환경과 소통 분야에서 높은 추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민선 7기 추진해야



할 공약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통해 구민과의 약속이행과 신뢰 행정을 도모하고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고자 각 분야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 2021년을 '약속완성의 해'로 정하고 구민과의 약속을 완성도 높은 결실로 일구고자 분주하게 달리고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로 어려운 상황에도 구정에 관심을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쾌거"라며 "민선 7기 공약을 모두 달성해 '약속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관심과 참여로 계속 함께 해 달라"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임실군, 옥정호 환경관리 및 불법행위 근절에 온 힘



임실군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옥정호 주요 관광지에 방문객 증가가 계속됨에 따라 철저한 주변 환경관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최근 윤종리 작아꽃과 수변도로 장미 텃밭 등 화려한 봄꽃으로 인해 운암교, 요산공원, 국사봉 등 구간별로 많은 방문객이 모여들었다. 이에 따라 쓰레기 투기행위 감시, 방치 쓰레기 수거 등 수질개선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23명의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들이 환경관리선과 차량을 이용하여 4월부터 두 달간 약 4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옥정호 내 낚시행위, 무단 세차 행위 등 수질 보전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해 순찰선과 순찰 차량을 이용해 집중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 따뜻한 날씨로 인해 불법 낚시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지도선 등을 이용해 2개 조로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여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옥정호 구역별로 설치된 환경감시초소에서 수시로 감시해 불법행위 발견 시 단속반을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옥정호에서 불법 낚시행위로 적발 시 물환경보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수시로 홍보·계도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옥정호는 전라북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자 상수원인 만큼 선제적인 자연경관 보존 및 수질관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노원구, 도로 위 불법적치물과 무단투기 강력단속으로 깨끗한거리 만든다

부서간 협업시스템 구축해 도로 위 불법적치물 및 무단투기 폐기물 3시간 이내 단속

서울 노원구는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적치물과 무단투기를 강력단속 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일부 상가의 경우 인도나 차도에 물건을 진열 판매하고 상품의 무단적치, 불법 주정차를 서슴지 않는 등 무법지대를 방불케 하고 있었다. 이는 도시미관을 저해할뿐더러 보행 안전의 위험요소가 돼 적극적인 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구는 지난 4월부터 도로 위 확장영업에 따른 불법행위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강력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대상은 ▲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확장 영업하는 행위, ▲ 업소에서 쓰레기를 도로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 ▲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 분리 및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현장단속원 27명이 투입됐다. 또한 도로점용 및 불법적치물을 담당하는 도시경관과,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부서인 자원순환과,

그리고 동네 사정을 잘 아는 동 주민센터가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 활동방을 개설했다.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불법사항을 찾아내 공동업무 활동방에 게시하면 담당부서가 3시간 이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구는 최근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릉역과 마들역 일대를 재정비하고 물청소를 실시한 후 화분 13개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일반 보행자는 물론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 주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구는 지난 2018년부터 동네 청소행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설했다. 일반주택 지역 뒷골목에 자활근로 사업단 82명, 희망일자리 165명을 집중 투입해 매일 청소를 실시한다. 아울러 무단투기 단속반을 15명으로 확대하여 전 지역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거일을 주 3회에서 주 6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청소행정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정비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불법행위가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잇따랐다”면서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걷기 좋은 환경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남원시, 공중화장실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설치

남원시는 최근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5개소의 공중화장실에 설치하여 여자화장실에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을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버튼을 눌러야만 작동하는 버튼식 안심비상벨은 신체가 구축되는 경우 상황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에 다소 제한을 받았으나,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은 화장실 내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음원을 감지해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방식인 것”으로 전했다.

남원시는 관광단지주차장, 광한루 주차장, 터미널, 시장주차장 등 42개소 공중화장실에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은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등 특정 음성뿐만 아니라 비명소리, 폭행·구타 소리 등의 이상음원에도 반응해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범죄예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남원시는 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불법촬영 등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가짜건설사 근절 성과 커..정부에 정책 지원 건의



경기도가 입찰단계에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특목한 성과를 거둬에 따라, 올해 정부지원 건의 등 전국적 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344개 건설공사 입찰에 응찰한 569개 건설사를 사전단속해 167개사를 적발하고 이중 148개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건설업계의 병폐인 건설업 면허대여, 불법하도급의 원인인 가짜 건설사 근절에 큰 성과를 거뒀다(2021년 4월 말 기준).

이러한 사전단속으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올해 1~4월 공공공사 평균 입찰경쟁률이 387:1로 사전단속 제도 시행 전인 2019년 동기평균 입찰경쟁률(512:1)보다 24% 감소했다.

특히, 지난 3월 15일부터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 되도록 하자 올해 4월, 10억 원 초과 공사 평균 입찰경쟁률이 지난해 동기 198:1보다 14% 감소한 168:1로 낮아져 건설한 건설사의 입찰 수주 확률이 높아졌다.

지나해부터 도내 시군에도 사전단속을 확산시킴에 따라, 지난 4월말까지 29개 시군이 797개사를 조사해 66개사를 적발, 이중 42개사를 행정처

분했다.

또한 올해 공공부문 종합공사 낙찰 예정인 전문건설사나 전문공사 낙찰 예정인 종합건설사가 해당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경기도의 사전단속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지방정부의 건설사 실태조사 권한 확대와 2022년도 관련 인건비 책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시군 사전단속, 건설업역 상호진출 확인 등 가짜건설사 근절 정책을 조기 정착하고 지자체들의 인력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가짜건설사 적발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시군 대상 교육을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 내 재정효과를 발휘하는 건설한 건설사만이 일감을 수주하는 환경이 정착되는데 지속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전단속 동의서를 통해 스스로 가짜건설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응찰한 가짜건설사는 입찰방해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 건설공사 수주를 따낸 뒤 불공정 하도급으로 일을 처리하는 페이퍼컴퍼니는 부실공사, 거래질서 교란,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며 “공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수기자

광양시,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홍보



광양시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폐기물 문제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예방을 호소하고 있다.

불법투기 사례는 임대차 계약 시 건축자재 또는 의류 보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단기간에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하거나 평범한 고물상으로 위장해 울타리 등으로 내부를 가린 후 불법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톱백(대형 마대)이나 래핑(비닐포장)으로 위장해 폐기물을 반입하는 등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불법투기된 폐기물은 법에 따라 원인가가 처리해야 하지만 원인가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주가 처리 책임이 있고 수역·수심역 원의 막대한 처리비용이 든다.

시는 불법폐기물 투기 예방을 위

해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의심현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수칙을 잘 지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첫째, 한적한 토지나 공장, 또는 창고 임대차 계약 시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한다.

둘째, 임대부지를 수시로 확인해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예방한다.

셋째,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경우 불법폐기물 투기 의심을 하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방치폐기물 투기가 발생하면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폐기물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불법투기 한 건도 없어'

경남 진주시는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 불법 토지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자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3월말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자진신고, 부동산 제보, 자체 조사 등을 거쳐 31일에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 ▲진양호 친환경 레저힐링공간 조성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4개 사업 편입토지 1,482필지 2,817,355㎡에 대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조사대상자는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과 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이며, 대상자인 경우 휴직자와 공로연수자를 포함하여 재직공무원 전체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1,189명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

였다.

4월 9일까지 공직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취득세 부과 자료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 부동산 거래 내역과 대상 사업 편입토지를 대조하여 조사하였으며, 자료조사와 대조, 검증 등 조사과정에 시민 전문감사관을 참여시켜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사 결과 대상 공무원에 대한 개발지역 내 부동산 거래 내역이 1건도 발견되지 않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 감사관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부동산 투기 등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센터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항상 열려있으니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부천시, 클래식 특화공연장 명칭 '부천아트센터' 확정!



부천시 클래식 특화공연장의 명칭이 "부천아트센터"로 확정됐다. 부천시는 2023년 개관을 목표로 부천시청 부지에 조성하고 있는 부천문화예술회관(가칭) 명칭 공모에서 1차 내부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부천아트센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된 공모작 접수 결과 전국 각지에서 총 600편이 접수되었으며, 상징성, 창의성, 명료성, 국제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부천아트센터"는 직관적이면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공연장의 주요 사업들을 상징하며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 평가됐다.

최종 명칭으로 선정된 부천아트센터는 총 600편 중 16명의 중복 제출

자가 있었으며, 동일 명칭은 가장 먼저 접수한 자를 당선작으로 한다는 공모원칙에 의거 해당 명칭을 가장 먼저 접수한 인천 서구 거주자 K모씨(71세)가 선정됐다.

최종 명칭으로 선정된 응모자 1명에게는 명칭 부여와 함께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며, 수상작은 내외부 검토를 거친 뒤 브랜드 로고로 개발해 활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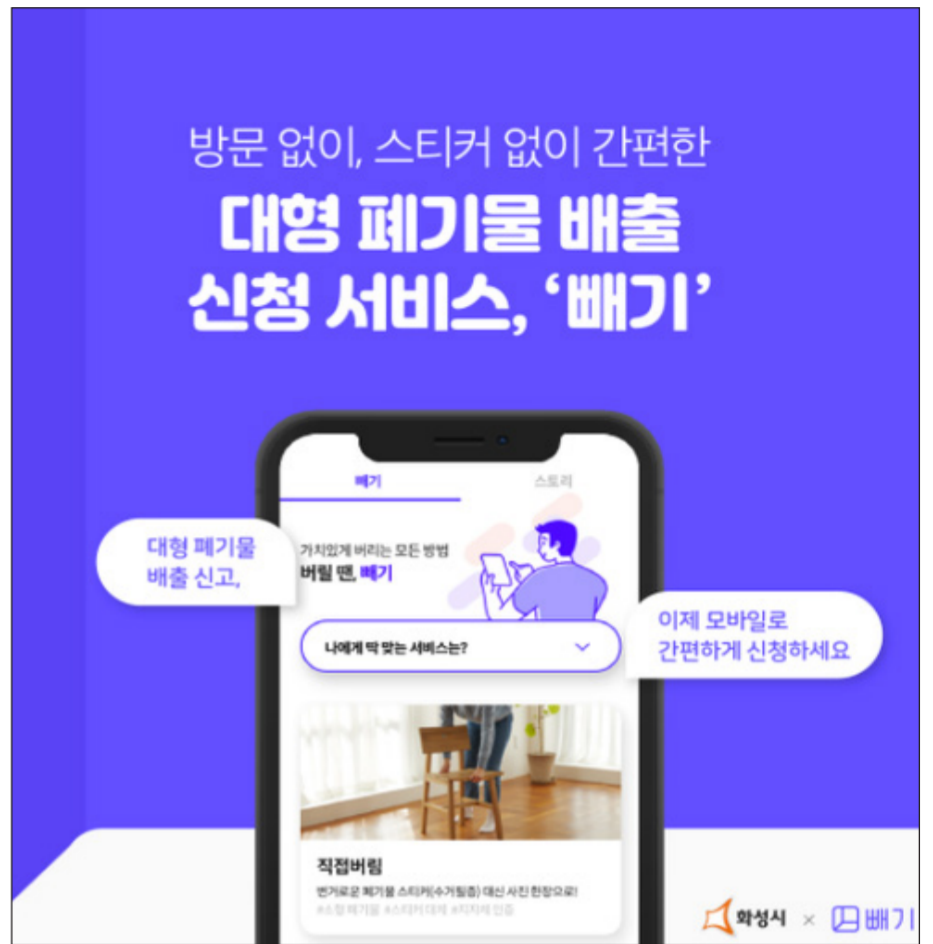
이에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아트센터로 접수한 1, 2순위의 시차는 단 11초였다"며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장덕현 부천시장은 "이번 부천아트센터의 명칭 확정은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2023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희/기자

화성시, 6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 배출은 '빠기'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빠기' 서비스 개시



화성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모바일로 대형 폐기물을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는 '빠기'서비스를 개시한다. 빠기 어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실행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고 배출하면 수거업체가 자동 수거하는 방식이다.

특히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 가구와 전자제품은 지역 내 전문 중고재활용센터와 연계해 '중고매입'서비스도 제공하며, 대형폐기물을 옮기

기 힘든 노인과 여성을 위해 '내려드림'서비스도 지원한다. 이강석 자원순환과장은 "빠기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고 자원 순환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빠기 서비스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증가와 더불어 폐기물 스티커 제작 비용으로 연간 약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남주/기자

하남시자원봉사센터, "그냥 오다 주웠다" 비대면 플라스틱 환경정화 캠페인 추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상호)는 5월 한달동안 하남시민 60여명과 함께 코로나19로 증가한 생활속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그냥 오다 주웠다"비대면 플라스틱 환경정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플라스틱으로 위협받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하남시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실태를 알아보고 깨끗한 환경을 미래에 선물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대면 캠페인 참여를 위해서는 하남시 관내 공공장소(버스정류장, 놀이터, 골목길,공원)에 방문하여 타임스탬프 앱으로 시작전, 시작 후 2시간 활동 인증샷을 촬영하고, 개인

SNS에 #하남시 #하남시자원봉사센터 #그냥오다주웠다 등의 해시태그와 시민들의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을 홍보하는 글을 게재하면 된다.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자원봉사자는 "2시간 동안 주운 쓰레기 중 제일 비율이 많았던 건 플라스틱 쓰레기였다"라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쓰레기라도 가정으로 가져가 재활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하남시자원봉사센터는 월 1회 플라스틱 줄이기를 주제로 비대면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이며, 캠페인에 관한 자세한 정보 및 참가신청은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수/기자



의정부시, 어려운 이웃의 건강 의료급여로 지킨다



의정부시는 어려운 이웃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38억 원(국·도비 포함)의 예산으로 의료급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은 1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 무능력자, 행려한자, 타법 적용자(이재민, 18세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자가 아닌 자이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들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 진료 후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지원 금액은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진료비는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병·의원은 1,000원~2,000원, 약국 약제비는 500원, 2종 수급권자는 최대 15%까지의 본인 부담액을 뺀 금액이다. 이외에도 어려운 이웃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 본인부담금 지원 제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18세 미만자, 입산부 등 본인부담 면제자 및 급여제한자 제외)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

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매월 6천 원이 지원되며 수급권자별로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된다.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은 본인부담액이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 주고 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 지원은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해 준다.

■ 현금급여 지원제도
요양비 지원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할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지·보조기,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88개 품목의 보조기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입신·출산진료비는 의료급여수급

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에게 지원한다. 급여 1,2종 구분 없이 60만 원(다태아인 경우에도 100만 원)이 지원되며 1일 사용액 한도 제한은 없다.

■ 치아 관련 지원 제도
의료급여 노인 틀니 지원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이며 치과에서 발급받은 틀니등록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치과에서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산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승인 후 틀니를 시술받아야 하며, 1종 수급권자는 비용의 5%, 2종 수급권자는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지원은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수급자가 대상이며 틀니 신청과 마찬가지로 치과에서 발급받은 치과임플란트등록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치과에서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산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 산정특례 제도
산정특례 제도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특정질환을 가진 경우 본인부담 등에 있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정질환이란 중증질환(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을 말한다.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후 선정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1종 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되며 질환구분 급여일수도 별도 산정되는 등 질환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020년 저소득층 1만3천35명에 대해 국·도비를 포함한 706억6천500만 원의 예산을 의료급여사업에 지원해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적극 수행했으며 앞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취약계층의 의료 관련 고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의왕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전담창구 운영



의왕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1·2차 예방접종 완료자는 종이증명서나 모바일 앱 '질병관리청 COOV'를 통해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1·2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의 경우 모바일 앱과 같은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종이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집중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등 재발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의왕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간편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내 6개 동 주민센터에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이 지난달 24일 기준 대상자 7930명 중 7461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해 94%의 높은 접종률을 나타냈다.

원준균/기자

하남시, '자족도시 성장동력 확보' 하남교산 기업유치 TF팀 본격 가동

김상호 시장, 기관 간 협업으로 직주근접 자족도시 이뤄 나가겠다

하남시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지구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도시공사와 '하남교산 기업유치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TF팀"은 교산지구 내 자족용지에 핵심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 시와 LH·하남도시공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유치를 추진하며, 단기 최우선 과제로 교산지구 내 기업의 성공적인 이전을 이끌 계획이다.

"TF팀"은 하남시 일자리경제국장을 총괄 반장으로 ▲기업유치반 ▲기업이전반 2개 반 19명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기업유치반은 하남시 기업지원과장을 반장으로 시 기업유치팀·정책팀, LH신도시사업혁신단 기업지원팀, 하남도시공사 교산기획팀·도시미래팀이 참여한다.

주요 협업사항은 ▲교산지구 핵심유치 업종에 맞는 앵커기업 등 유망기업 발굴 ▲기업의 니즈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요구 ▲용지공급 시 기업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한 지자체장 추천권 활용 등이다.

특히, 하남도시공사에서는 기업유치 실행계획 수립영역을 실시할 예

정이며, 실현 가능한 기업이전 리스트를 작성해 인터뷰 등을 계획 중에 있다.

기업이전반은 하남시 도시전략과장을 반장으로 시 기업설립지원팀·교산사업팀, LH하남사업본부 보상부, 하남도시공사 교산조성팀이 참여, ▲현재 추진 중인 미사·감일지구 우선공급 추진 ▲선(先)이주 대책 등에 대한 협업을 진행한다.

김상호 시장은 "단기적으로 교산지구 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목표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산지구 23만 여(81,000㎡)평 자족용지에 지구 북측으로 AI·IT융복합 첨단R&D 산업, 지구 남측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계획 중에 있다"며, "하남교산 기업유치 TF를 통한 기관 간 협업으로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직주근접의 자족도시를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달 내 '하남교산 기업유치TF'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며, TF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수/기자



안양시, 혁신과 변화로 수요자 중심의 여권민원서비스제공

7월부터 대기가 필요 없는 '온라인 여권발급 신청 사전예약제'시행

민원인이 편리하게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여권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발급신청 대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안양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민원행정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며 민원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7월부터 온라인 여권접수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온라인 여권접수 예약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하고, 해당 날짜에 예약전용 여권창구를 방문 대기 없이 발급 신청하는 방식이다.

분격적인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 형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여행 급증에 대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도 거두기 위함이다.

시는 이를 위해 홈페이지에 여권접수 사전예약 메뉴(누리집) 추가 구축을 6월중 완료할 계획이다. 또 현재 6개 여권 접수창구 중 한 곳을 예약민원 전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적극행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여권민원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비대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전격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엔 여권 재발급 받기 위해 접수와 수령 두 차례 민원창구를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

인 신청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여권을 수령할 때 한 차례만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할 때 거주하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여권을 수령할 기관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정부24'에 로그인 후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

를 납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이밖에도 여권민원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가 하면, 몸이 불편하거나 먼 곳에 거주해 민원실 2회 방문이 힘든 민원인을 위해서는 맞춤형 등기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우선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안내도우미를 배치해 발급안내, 노약자 대필, 팩스이용 및 여권복사 등을 돕고 있다. 전자여권 커버를 제작 배부해 전자접 수혜서비스도 실시한다.

시는 이와 아울러 여권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도 벌이는 등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해외여행 수요가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심리와 맞물려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혁신적 여권행정 서비스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글로벌 시대에도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원종균기자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인공폭포 자연친화공간으로 새단장

인공바위 견어내고 자연석, 꽃, 나무 등 조성

고양시는 31일 '일산호수공원 인공폭포 개선사업 준공식'을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시의회위원장, 장항2동 주민자치위원장, 조정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인사 말씀, 사업 추진 경과, 인공폭포 준공·리본 커팅식 및 인공폭포 가동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일산호수공원 인공폭포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14억 원이 투입됐고 새로 조성된 인공폭포는 폭 88m, 높이 4.8m~8.5m다. 주폭포 3개소와 2단 폭포 2개, 계류(시냇물) 2개로 조성됐다. 주 폭포 3개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북한산의 세 봉우리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를 형상화했다.

폭포 진입로는 디딤돌로 울퉁불퉁했던 기존 방식을 바꿔 3m 폭으로 넓히고 경사를 이룬 '무장애 진입로'로 만들어 휠체어와 유모차의 진입이 가능해 장애인과 노약자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폭포 주변에는 소나무, 연산홍 등 14종 2,833주를 심고 꽃창포 등 5종 2,850본을 심었다. 야간 폭포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47개의 경관 조명도

설치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산호수공원의 랜드마크인 인공폭포에서 편히 쉬어가고 즐길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공폭포 가동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2시 30분부터 3시, 3시 반부터 9시다. 6월부터는 오전 6시부터 8시 반까지 운영 시간이 추가된다.

한편,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은 2019년 일산호수공원 인공폭포의 인공암(FRP) 유리섬유 노출 이슈다. 유리섬유는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국제보건기구(WHO)의 공식발표가 있었지만, 유리섬유는 유해물질이라는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미세먼지와 함께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했다.

이에 시는 2019년부터 노후화로 부식이 있는 인공암 유리섬유 부분을 신속하게 철거했고, 지난해 인공폭포 인공암 전체를 철거하고 자연석을 활용해 새롭게 폭포를 조성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남양주시, 건강UP! 쓰레기ZERO! 진접읍 에코플로깅 활동 실시



양속천살리기운동본부는 지난 29일 진접읍 금곡천 주변에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에코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플로깅 활동에는 양속천살리기운동본부 회원들 및 인근 지역 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금곡천 주변을 산책하며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쳤

다. 활동에 참여한 양속천살리기운동본부 임종욱 대표는 "우리동네 하천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플로깅 활동을 주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학생들이 플로깅 활동에 참여하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하천을 스스로 가꾸어가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이상운센터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위해 주말에도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진접읍을 위해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최정근기자



포천교육지원청, 청소년 시민이 함께 만드는 포천 행복교육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5월 22일, 29일 양일간 20시부터 22시까지 '포천지역청소년교육의회'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및 검증에 관한 토론 온라인 캠프를 진행했다.

'정책 제안 및 검증을 위한 토론'이란 청소년의 주도적인 포천교육 정책 참여를 통해 정책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을 포천

교육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온라인 캠프이다.

이번 캠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학생이 참여하는 정책 제안 및 반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원격으로 진행됐다.

22일은 상록중학교 최정윤 교사가 '청소년교육의회의 역할, 정책의 의미, 정책의 조건'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소회의실로 이동해 주변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구안하기 위한 토론을 했다.

29일은 계남고등학교 오재훈 교사의 '제안된 정책의 검증 방법' 특강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구안한 정책에 대

한 1차, 2차 검증 토론을 월드 카페(그룹으로 나뉘어 여러 가지 주제를 두고 토론하며 지식을 공유하는 대화 프로세스) 방식으로 진행했고, 전체 나눔 활동 후 상임위원장 소감 발표로 교육을 마무리했다.

온라인 캠프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은 포천시청과의 청소년 정책공모전으로 우수정책을 발굴해 2022년

도 포천교육지원청과 포천시청의 정책 기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캠프에 참석한 한 학생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번 만들어진 정책은 포천에 있는 모든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며 신중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정동희기자

AI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경상북도, 역발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나선다.

경북도, 카이스트와 협약 맺어 사회문제 해결 위한 장 마련

경상북도와 카이스트는 28일 '인구 감소는 기회다'를 주제로 제1회 '경북 역발상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경북 역발상 미래포럼'은 인구감소, 기후변화, 대학위기 등 경북이 마주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기존과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상식을 뒤집은 주제 선정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로 발상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포럼은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서 교수는 양(quantity)보다 질(quality)의 관점에서 인구감소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질의 경제'라는 접근을 소개했다.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인구감소의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자유토론은 경제·정치·도시공학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각의 관점에서 인구감소가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포럼은 10월 까지 총 6회(오프라



인 2회, 온라인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이 망하는 길(교육) ▷탄소가 필요한 도시(기후환경) ▷단체 관광객은 사양합니다(관광) ▷나 혼자 산다(복지) ▷죽음의 미래(복지)라는 주제로 매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할 예정이다. 경북도와 카이스트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정책 반

영, 신규사업 발굴 및 정부사업 공모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취임 초부터 '변해야 산다'를 강조하며 창의적 발상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왔다"면서, "역발상 미래포럼이 도정혁신을 위한 변화에 많은 영감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경주시, 고령층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 홍보캠페인 실시

6월 3일까지 60~74세 어르신 본인 또는 가족이 백신접종 사전 예약하면 돼...

경주시는 지난 29일 안강시장 장날에 맞춰 60~74세 고령층의 백신접종 사전예약을 독려하는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주시 직원과 안전보안관 등 2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는 안강시장 일대에서 백신접종 사전예약 안내문과 코로나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 마스크 등을 배부하며 접종 사전예약을 독려했다.

시는 이번 홍보활동을 시작으로 60~74세 백신접종 예약 마감일인 6월 3일까지 정기 장날 및 상설 전통시장(건천시장·성동시장·중앙시장·외동시장) 등지에서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백신접종 사전예약은 본인이 직접 예약하거나 보호자가 대리 예약하면 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또는 질병청 콜센터, 경주시 콜센터, 그리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접



단면역의 조기 형성과 효율적인 방역대책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국내 60세 이상 백신접종자 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6.6%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예방효과를 보였다.

한반식기자

포항시, 'K-바이오 랩허브' 유치 유관기관 중간점검 회의 가져

랩허브 유치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 랩허브 포항 유치 전략 발굴



중소벤처기업부의 K-바이오 랩허브 사업설명회 개최에 따라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포항시가 랩허브 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중간점검 회의를 열고 유치 전략 대응에 나섰다. 이번 랩허브 사업설명회는 유의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에 한해 참석이 가능했으며 전국에서 서울과 충남 등을 제외한 경북, 대전, 인천, 충북 등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날 전략 회의는 지난 5월 27일 K-바이오 랩허브 사업설명회 관련 기관 간 공동 대응 협력을 위해 추진됐으며, 포항시 외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소, 세포막단백질연구소,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 및 코리오펙 등 지역 바이오 기업, 바이오 분야 전문가와 협력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중기부의 랩허브 사업설명회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략 대응과 함께 앞으로의 바이오 랩허브 추진 관련 안건 등을 다루었다.

포항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K-바이오 랩허브 사업공고가 5월 12일 발표된 이후, K-바이오 랩허브의 지역 유치 세부계획을 수립할 실무추진단 TF팀을 구성 5월 25일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사업 선정 가

능성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전략을 파악하는 등, 포항이 가진 비교 우위를 활용해 계획을 수립 중이다. 포항시는 타 지자체 대비 사업부지의 접근성과 정주 여건 및 많은 최첨단 연구소가 인접하고 있으며, 산·학·연·병 등 협력모델에서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형 랩허브는 협력 네트워크 구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스타트업기업과 성장기업을 위한 창업보육동, 협력 기관과 입주 기간 네트워킹 공간인 커뮤니티동, 연구장비 270여 종, 동물실험 장비, 생물안전 연구시설(ABSL-3) 등의 연구 장비동, GMP(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생산동 등 5~6개의 건물로 구성된다. 정부는 유치 조건으로 최소부지면적 30,000㎡ 이상을 요구하는 등 대규모 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이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유치에 힘쓸 것이며 포항시가 가진 우수한 바이오 인프라와 강점을 활용하면 수도권 등 타 광역지자체를 제치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부산시, 광산 전수조사 완료...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시, 구군, 보건환경연구원 공동으로 시행한 광산 전수조사 완료...

부산시가 부산지역 광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광산 관리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달 21일, 금련산 광산의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된 이후 구·군,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원 20여 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시역 내 광산을 전면 조사했다.

지난 2008년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광산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채굴 인가를 받은 광산은 총 45곳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채굴한 적이 없는 13곳과 합병된 1곳을 제외한 31곳이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 총 31곳 가운데 ▲시가 매년 환경오염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통보해 광해 방지사업을 추진해 온 8곳과 ▲금련산 광산을 비롯해 이번 조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7곳 등 총 15곳은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추가로 발견된 7곳의 토양 및 광수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 분석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이들 15곳을 대상으로 매년 오염도 조사와 광해 방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광산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 ▲16곳은 채굴 흔적이거나 광산의 흔적이 없는 곳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 중 8곳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관리하던 부산지역 광산 23곳에 포함되어 있어 시는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단 측에 현황 정보를 요청했다.

부산시는 이번 검사 결과, 오염도가 큰 광산은 토양복원 등 광해 방지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한국광해관리공단)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광해 방지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단기간에 복원이 되는 것은 어려워 우선 연 1회 실시하던 정밀조



사를 연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출입을 제한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는 내년에 실시할 예정인 '부산시 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폐광산 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근희 부산시 물정책국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폐광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토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영경기자

남해군, 고령친화상점 '여기쉬어가게' 호응 좋아

참여가게는 어르신들께 생수 무료 제공하고 화장실도 무료 개방

남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상점인 '여기쉬어가게' 운영이 본격화됐다.

남해군으로부터 고령친화 물품을 지원받은 '여기쉬어가게'가 관내 곳곳에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고령친화 상점 '여기쉬어가게'는 남해군과 민간 점포주가 함께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상점을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각종 편의가 제공된다.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점이라면, 일반 주민들도 자주 이용할 수 있다는 목표도 설정돼 있다.

남해군은 3곳의 시범지역(남해읍, 삼동면, 창선면) 개별 상점주로부터 참여 희망 신청을 받아 최종 36개소를 '여기쉬어가게'로 선정했다.

지난 5월 18일 참여점포주에게 현판을 전달했으며, 어르신 응대 등에 대한 점포주 기본교육 역시 병행했다.

여기쉬어가게에는 어르신들이 쉬어갈 수 있는 배려의자와 갑자기 비가 올 때를 대비하여 빌려드리는 안심우산 등이 비치된다. 또한 노인 학대 신고번호를 안내하고 남해군 어르신 관련 사업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생수 무료 제공과 화장실 무료 개방 등의 서비스와 함께 고령자 할인 혜택도 이루어진다. 상점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점 점포에 부착된 현판에 표기되어 있다.

남해군 주민복지과는 고령친화상점 '여기쉬어가게'에 노인 친화적인 매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미끄럼 방지 매트, 배려의자, 지팡이 걸이, 돋보기, 안심우산, 화장실 안전바 등의 물품 지원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31일 남해읍 소재 '여기쉬어가게'를 방문해 참여업주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장충남 군수는 "여기쉬어가게 시범사업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소비생활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2022년 남해방문의 해를 맞아 군민은 물론 남해군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친절과 배려가 곳곳에 배어있는 고령친화도시 남해군의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남해군은 하반기 모니터링을 통해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사업을 지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영훈기자



함양양파 올해 첫 대만으로 수출

함양군의 특산품인 함양양파가 코로나 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해 첫 수출길에 올랐다.

군은 5월 31일 오후 2시 함양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서준수 함양

군수와 황태진 군의회의장, 김재웅 도의원을 비롯한 수출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산 함양양파 48톤을 올해 첫 대만으로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다.

지난 2019년도에 전국 최초로 양파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함양농협에서는 이번 선적을 시작으로 올해 300~400톤가량 수출할 계획이다.

서준수 함양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 미중 무역갈등 등 세계 무역시장이 혼란한 가운데 농산물 수출을 하기 위한 수출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다."며, "양파를

비롯한 함양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함양농협에서 양

파를 선별하고 함양군이 품질을 인증한 양파의 양파를 오는 6월 2일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자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최광용기자

'산청에 살어리랏다' 자연에서 힐링할 사람 모여라

산청군 경남형 한달살이 2차 참가자 모집

지리산과 경호강의 고장 산청군이 자연과 함께하는 '산청형 한달살이'에 참가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6월1일부터 20일까지 경남형 한달살이 사업인 체류형 장기 여행 프로젝트 '산청에 살어리랏다'의 올해 2번째 참여자를 모집한다.

'산청에 살어리랏다'는 도시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 현대인들이 지리산 천왕봉의 고장 산청에서 청정한 자연을 누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020년 첫 시행 당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 3월 1차 참가자 모집에서도 2.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참가자에게는 최소 2박3일부터 최대 29박30일의 기간 동안 숙박비와 산청군의 다양한 문화예술·역사유적·농촌생활 체험비·관광지 입장료 등을 지원한다.

참가 신청은 경남 외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청년, 유투버, 블로거 등 개인 SNS활동이 활발한 사람을 우대할 방침이

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청은 예로부터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1000여종의 약초를 바탕으로 한방한의학이 발달한 한의의 고장이다.

산청군은 지역이 품고 있는 향노화 자원과 동의보감촌, 남사에담촌, 황매산 등 지역관광명소를 산청관광벨트로 연결해 전 지역에서 다양한 힐링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군은 또 지난 2013년 제1회 엑스포 개최 노하우를 바탕으로 10년 만인 2023년 제2회 산청세계전통의약향노화엑스포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엑스포 개최 이후 동의보감촌을 세계적인 한방향노화 테마 웰니스 관광 허브로 조성할 방침이다.

군은 성공적인 엑스포 추진을 위해 동의보감촌 전경은 물론 왕산과 웅석봉 군립공원, 밀리 황매산까지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출렁다리인 '힐링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리산 산약초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산약초재배단지를 만드는 한편 동의보감촌을 둘러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치유의 숲도 조성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산청군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며 건강과 힐링을 테마로 하는 웰니스관광 산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산청에 살어리랏다' 프로그램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기회를 가져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사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MRO사업 추진 중단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STK-IAI 3자간 MOA체결 철회 요청

사천시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외국회사와의 투자협약을 빌미로 항공MRO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송도군 사천시장은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하영제 국회의원, 박정열, 김현철, 황재은 경남도의원, 이삼수 사천시의회장 및 시의원,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송 시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역할이 단순 부지 제공이 아니라 격납고 및 인프라 등 항공MRO 개조시설 건축 및 임대가 포함돼 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행 법률상 공기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항공기 개조사업에 참여해 직접 항공MRO 사업을 진출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공항공법' 등에 반하는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도 국토교통부 차관 재직 시 '항공기 정비업' 부분은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 정비업을 수행하려는 것은 민간영역의 침투로 규정한 바 있다.

또, 송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의 항공기정비업 진출과 관련해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4차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고, 하영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관련 개정법률안도 계류 중"이라며 "상반된 내용의 법률안이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항공MRO사업에 진출하려는 것은 법을 무시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규탄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 사업에 참여한다면 국가핵심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으로 인한 형세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걸음마 단계인 항공MRO 정비사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사천지역 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12만 사천시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월 4일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과 항공정비 전문기업 ㈜사프테크닉스케이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 합의각서에는 <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내 개조시설을 건축하고 해당시설을 합작법인에 임대한다>, <공항공사는 미국연방 항공국 규정 및 합작법인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개조시설을 제공한다>, <공항공사는 개조시설에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지, 격납고, 인프라 등의 필수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강영훈/기자

창녕군, 봄철 농촌 일손돕기 총력

창녕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봄철 농촌 일손돕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순수인력 189,551명, 농기계 대체 53,400명을 제외한 마을·양파 수확 및 파종, 비닐하우스 작업 등 총 1,600명의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파악하고, 코로나19 피해 농가, 고령 농가 등 일손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봄철 농촌 일손돕기로 농번기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해 저기 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전 읍·면(담당실과)별 2회 이상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해 공무원이 먼저 솔선해 참여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재해와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수급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군부대, 기관단체, 기업체 등에도 일손돕기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군은 전 읍면에서 농촌일손돕기 추진단 및 창녕군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운영중이며, 일손돕기 참여자와 희망 농가 간 사전예약제 실시로 인력누수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남궁영기/기자



남해군 지족시장 커뮤니티센터 개소식 개최



남해군은 28일 '창창시장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지족 공설시장 커뮤니티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창창시장 조성사업은 지역의 유희·저활용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0년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이다.

삼동면 지족 공설시장의 유희공간인 어판장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남해군은 그동안 공동브랜드 디자인 개발과 더불어 창창 커뮤니티공동체 아카데미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1월 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였다.

지족시장 커뮤니티센터는 창업실험공간인 일반점포가 들어선 1층과 커뮤니티 공간인 2층으로 구성돼 있다.

1층 점포는 지난 3월 사용허가를 통해 청년 창업자가 입주하여 운영중이며, 2층 커뮤니티공간은 다목적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소통공간, 소규모 클럽

래스 운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총 예산 5억 2000만원이 투입된 '지족 공설시장 커뮤니티센터'는 공설시장 기능이 점점 퇴색해 가는 공간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측면에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를 비롯해 이주홍 군의회장, 류경완 경남도의원, 윤정근 군의원, 임태식 군의원, 박평근 삼동면 이장단장 등 지역주민 대표, 그리고 최을근 지족시장 변영회장을 비롯한 시장상인들이 참석해 지족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커뮤니티 공간이 주민들이 소통하고 상상할 수 있는 장소로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창창시장 조성사업을 계기로 지족시장이 하나의 관광지로 자리잡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창원시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6월 4일까지... 서두르세요"

창원시는 정부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비밀복지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지원자를 제외하고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소득 합이 기준 중위 소득(4인가구, 3,657,218원) 75% 이하, 재산기준 3억5천만원이하 대상 중 현재소득이 감소한 가구이다.

온라인 신청은 28일까지로 접수 신청이 마감됐고, 현장 신청은 오는 6월 4일 오후 6시까지(주말신청 불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

소득감소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12개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급여내역 통장사본 등)이다. 소득감소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하면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의 소득감소 증빙자료와 함께 공격시스템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6월 중 1가구당 1회 50만원이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가구원수 무관)

시는 정확한 사업안내와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남궁영기/기자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어린이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함양군 대봉산휴양밸리는 지난 5월 28일 유림초등학교 전교생 21명(유치원 3명 포함)을 대상으로 어린이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봉산휴양밸리 내 산림욕장의 소나무 숲에서 진행된 이번 숲 체험은 나무와 대봉산 봉황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고, 학생들이 나무에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이야기를 나무에게 속삭이며 나무와 교감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친구들과 협동하여 '애벌레 검기'라는 주제로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보고, 숲 주변의 돌을 이용하여 돌탑 쌓기, 통나무위에서 가위바위보 게임, 나무에 매달리기 등 속속들이를 통하여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숲 체험으로 어린이들이 자연과 호흡하며 숲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아울러 대나무 잎을 이용하여 나뭇잎 배를 만들어 보고, 옛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도록 지푸라기를 이용한 달걀꾸러미를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어린이 숲 체험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은 "이번 숲 체험 야외학습은 평소에서 잘 알지 못했던 나무이야기와 그 속에 숨겨진 숲의 비밀들을 알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다"라며 "평소 학교에서 체험해보지 못한 만물기도 어려웠지만 아주 재밌었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완주군, 최대 1인 11만 원 할인...완주군 알뜰 여행 상품 돌풍 예약

코레일 타고 3종 여행할인상품으로 완주 200% 즐기기



완주군이 1인 기준 최대 11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알뜰여행 상품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완주군에 따르면 코레일과 손잡고 렌트카 할인과 숙박비를 지원하는 여행상품을 새롭게 구성해 6월 1일부터 코레일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시작한다.

이번 상품은 '우리끼리 힐링 여행, 렌터카 타고 떠나는 고즈넉한 완주여행' 테마의 당일관광과 1박2일 상품 등 2종으로, 전주역이나 익산역에 도착한 후 렌트카를 이용하여 군 주요 관광지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다.

작년 8월에도 출시해 매회 매진되는 인기몰이를 했던 이 상품은 여행객들의 요청에 의해 올해 다시 상품화되어 더 많은 혜택을 담았다.

음산역~익산역 KTX와 렌트카를 이용하고 완주군에서 1박 할 경우 1인 기준 최대 11만17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왕복 기차요금 6만4000원에서 2만5600원으로 3만8400원을 할인받게 되고, 렌트카 비용도 4만5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여기다, 숙박비 2만 원 지원과 전북투어패스 카드(1일 권 8,300원 상당) 1장을 받게 되면 최대 11만 원 이상 할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완주군의 설명이다.

이용객은 1개 이상 완주군에서 소비한 영수증과 SNS에 관광지 방문 사진 업로드를 하면 코레일 열차표는 열차 상황에 따라 10%~70%, 렌트카는 47%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숙박 할인업체는 주요 호텔과 한옥스테이, 농촌체험마을 중 참여를 희망한 관광사업체 13개소를 지정했으며, 대상 숙박업소는 상품 예약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완주군은 또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방문하는 여행사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 계획도 내놓았다. 당일 또는 숙박관광 시 1인 기준 5,000원에서 1만5000원 상당의 지원과 코레일을 이용하는 단체 15인 이상은 버스 1대당 4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규설 행정복지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변화된 개별여행, 안심여행지에 대한 선호도 증가 추세를 적극 반영해 개별여행객과 가족여행객을 위해 구성했다"며 "수도권에서 열차로 2시간 이내에 방문할 수 있고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인 완주로의 힐링 여행 계획 시 많은 이용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알뜰완주 여행상품은 팻츠코레일 사이트에서 '완주여행'으로 검색하여 예약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관광마케팅지원센터나 익산역 여행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수/기자

곡성군, 마을만들기 구슬땀 송글 웃음꽃 활짝

46개 마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



곡성군이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곡성군은 먼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높이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총 46개 마을에 마을추진단, 홍보단 등을 만들어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배경을 공유하고 목표달성을 다짐했다.

이어 각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계획에서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주민이 직

접 주도하는 방식이었다. 46개 마을의 참여 주민들은 화단 조성, 벽화그리기, 마을 입구 분리수거대 제작, 우편함 달기, 타일벽화 설치 등 적극적으로 마을을 가꾸기에 참여하고 있다.

마을 벽화그리기를 추진한 고달면 죽림마을 주민 A씨는 "아름다운 벽화로 마을 입구를 장식하니 마을이 훨씬 밝아졌다. 예전보다 자주 마을입구로 마실을 나오게 된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이남출/기자

전주시, 책 읽고 사는 시민 위한 '책사랑포인트제' 시행

시, 독서문화 확산하고 지역서점 경영 안정 돕기 위해 '전주 책사랑포인트제' 운영

전주시가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독서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립도서관 회원인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전주 책사랑포인트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주 책사랑포인트제는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거나 참여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받은 포인트로 참여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립도서관 회원이 12개 시립도서관에서 대출도서를 반납하는 경우 1권당 50포인트를, 참여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면 구입 금액의 20%를 포인트로 적립한다. 당일 반납이나 연체도서는 제외되며, 적립한도는 1인 월 5만 포인트다.

서점에서 도서 구입 시 가능하다.

다만 포인트 적립과 사용은 단행본 도서에 한하며, 잡지와 문예집, 잡지, 전집 등 일부 도서는 제외된다.

현재 시는 책사랑포인트 적립 및 사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참여를 위해서는 7월 중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책사랑포인트제에 가입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이 전주 책사랑포인트 20% 적립과 더불어 전주 사랑상품권을 사용해 참여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최고 30%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책사랑포인트제를 통해 시민의 도서구입비 부담을 줄이고 책 읽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민의 지역서점 이용률을 높여 지역서점의 안정적인 경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도서관과 지역서점, 시민이 함께하는 전주 책사랑포인트제가 작가, 출판사를 포함한 독서생태계의 선순

환을 도와 지역 책문화를 새롭게 꽃피우고,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전주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신우철 완도군수, 신규 공무원과 소통의 시간 가져

애로사항 청취 및 권장 도서와 함께 응원 메시지 전해

완도군은 지난 5월 28일 군립도서관 어울마당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신규 공무원 20명이 소통하는 시간인 '행복 토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복 토크'는 지난 18일 이어 두 번째이며, 코로나19로 행사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 공무원 130명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신규 공무원과의 '행복 토크'는 최근 5년간 완도군에 2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신규 임용되면서 공직 사회가 젊어지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행정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군정을 이끌어갈 신규 공무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하게 됐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고흥 해안 관광도로 국도 승격, 국립남대수목원 유치, 2023 전라남도 체육대회, 2024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추전 개최 선정지 등 괄목할만한 성과에 대



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규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소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직접 선정한 권장 도서와

함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임용된 지 1년 5개월이 된 상하수도사업소의 공무원들은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과 애로사항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신우철 군수는 "소그룹이지만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이 군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와 직원들 간의 대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영용/기자

장흥군 병해충은 줄이고 소득은 올리고~ 벼 사전 병해충방제와 드문 모 심기로 안정 생산하세요!

장흥군은 매년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농사 분야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생력 재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모판 관주 병해충 방제 프로그램(그로모어/2015년 전남농업기술원 개발) 연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모판 관주 병해충 방제 프로그램은 모판에 살균+살충+영양제를 물과 희석하여 모판에 1회 관주 처리하는 방법으로 경영비 약 44%를 절감할 수 있는 생력 재배 프로그램이다.

드문 모 심기는 10a당 모판수를 10개 내외로 줄여 생력화와 생산비

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이양 방법으로, 15년부터 기술 보급하여 현재 50주 식재는 이미 많은 농가에 정착했다.

올해는 3.3㎡당 37주, 42~43주, 50주의 재식주수별 생산량 비교 실증과 병해충 발생 상황 등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시연회에 참석한 김병관 농가는 "모판 1회 관주 시연회를 통해 직접 올바른 처리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며 "올 한해 드문 모 심기와 그로모어로 풍년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담양 농특산물 전문 판매장 '담양장터' 온라인 쇼핑몰 개장

신규가입자 3천 원 적립금과 무료배송, 15% 할인쿠폰 지급

담양군은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지역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플랫폼 '담양장터'의 온라인 쇼핑몰이 문을 연다.

6월 1일 오픈하는 담양장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역 농식품 가공업체가 모여 설립한 담양장터 주식회사 법인이 안정적인 품질관리와 공급기반을 갖춘 우수한 담양산 농식품만을 판매한다.

이번 온라인 쇼핑몰 오픈을 기념해 구매왕 선별 이벤트와 신규가입자에게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적립금 3천 원과 무료배송 쿠폰을 증정하고 첫 구매 시 15%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 검색창에 담양장터를 검색하면 쉽게 쇼핑몰로 접속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와 연계한 담양장터 홍보,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SNS 홍보, 라이브 쇼핑 판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담양장터 몰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담양장터 온·오프라인 쇼핑몰은 담양군의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소비자와 연결해 주는 플랫폼으로, 믿을 수 있는 담양군의 건강한 먹거리가 다채롭게 구성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코로나 시대 비대면 유통망을 잘 정비하고 강화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홍관/기자



남도 최고 전통주에 담양 '대대표블루'

전남도, 품평회서 12개 대표 브랜드 선정...전국대회 출품

전라남도는 전통주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남도 전통주 품평회'를 열어 담양 죽향도가(대표 장유정)의 '대대표블루' 등 12개의 남도 전통주 대표 브랜드를 선정했다.

이번 품평회는 철저한 블라인드 테스트로 이뤄졌다. 박복담 한국전통연구소장 등 5명의 전문 심사위원이 총 16개 업체 25개 제품의 맛, 향, 색상, 후미 등 관능평가와 우리 농산물 사용실적, 술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서류심사를 했다. 종합대상 1개 브랜드와 탁주, 약청주, 증류주, 과실주, 기타주류 등 5개 부문 11개 브랜드를 선정했다.

최고 점수를 얻은 '대대표블루'가 종합대상 영예를 안았다. '대대표블루'는 담양에서 생산한 유기농쌀과 토종 발효를 사용해 장기저온 발효공법으로 빚었다. 지난해 우리술 품평회에서 탁주 부문 대상을 수상한 품격 있는 고급 탁주다.

탁주 부문 최우수상은 광양 ㈜백운주가의 '매실막걸리', 우수상은 해남 삼산주조장의 '참살생막걸리12도', 장려상은 곡성 시향가의 '시향기탁주'가



선정됐다.

약·정주 부문에선 최우수상에 광양 ㈜백운주가의 '백운대다무주', 우수상에 장흥 안양주조2공장의 '청화봉'이

뽑혔다.

증류주 부문에선 최우수상에 강진 병영양조장의 '병영소주', 우수상에 담양 죽향도가의 '죽향41'이 자리했

다.

과실주 부문 최우수상에는 완도 비파영농조합법인의 '황금과비파와인', 우수상으로는 함평 나비골농협레드마운틴의 '복분자술'이 이름을 올렸다.

기타주류 부문에선 최우수상에 광양 ㈜백운주가의 '복분자주', 우수상에 진도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의 '진도홍주 루비론'이 선정됐다.

입상한 전통주는 2021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 전남 대표 브랜드로 출품된다. 네이버 라이브쇼핑, 주류박람회 부스비 지원 등 판촉 활동도 지원한다. 또한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견배주, 만찬주로 추천하고, 이달의 남도 전통주로 선정해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올해 남도 전통주 품평회에서 선발된 수상작에 대한 다양한 판로 확대와 홍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우수 제품이 많이 등장하도록 시설 현대화 지원과 술 품질인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강진 푸소(FU-SO)체험, 외국인 팸투어 실시



강진군은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푸소(FU-SO)체험 팸투어를 진행했다.

푸소(FU-SO)체험은 'Feeling-Up, Stress-Off'의 약자로 시골 농가에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간 생활하며 농촌의 여유와 따뜻한 감성을 느끼는 강진군 고유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팸투어는 전라남도관광재단과 협력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의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여행상품인 강진군의 푸소체험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진행했다.

군은 기존 푸소체험에 더해 한국 음식 만들기, 우리나라 전통문화 배

우기 등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체험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외국인 전용 푸소체험을 마련했다.

외국인 전용 푸소체험 예약 및 신청은 온라인 판매처인에서 진행된다. 개별·소규모 여행이 증가하는 여행 트렌드를 반영하여 10인 이하의 소규모 단체 상품과 가족·친구끼리 즐길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관광객 몰이에 나선다.

김영빈 관광과장은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푸소 체험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코로나 19 사태가 완화되면 해외시장 수요에 대비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상품 판매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광주 서구, 여성 안전 위한 공중화장실 몰카·안심벨 점검

여성친화도시 일곱빛깔 시민참여단, 56개 공중화장실 대상

광주 서구 여성친화도시 일곱빛깔 시민참여단이 지난 27일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관내 56개소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몰카카메라 및 안심벨 점검을 실시했다.

일곱빛깔 시민참여단은 서구 기후환경과, 서부경찰서와 협조하여 주민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고, 5개 조로 편성해 정기적으로 화장실을 점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화장실 점검은 불법촬영 탐지카드를 이용한 정밀점검 및 안심벨 작동 점검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며, 고장 등 문제가 발견하면 즉시 관련 부서 및 경찰서에 전달하여 조치하게 된다.

서구는 지난 2017년 여성가족부로부터 2단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아 여성가족친화마을사업과



여성·아동이 안전한 우리골목프로젝트 등 여성친화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3단계 재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참

여할 수 있는 여성친화,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은 물론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살기좋은 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함평군 농업인 상담소, 농업농촌 고민 해결 역할 톡톡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농업인상담소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의 민원 수렴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30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함평군은 현재 학교면·해보면·손불면 농기계임대사업장 내에 각각 농업인상담소 3개소(중부·동부·서부점)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민원 수렴 및 농업기술상담, 선진 농업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는 일대일 맞춤형 현장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문제점 해결 방법을 지도하고, 다양한 귀농·귀촌 관련 최신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대다수인 농촌에서는 SNS 등을 통한 방대한 정보로부터 소외된 농업인들에게 상담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동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찾아가는 영농지도를 통해 농업 현장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고 농업인들



의 원활한 정착과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상담소를 통한 농업

분야 상담은 군민 누구나 가능하며, 현장 상담뿐만 아니라 전화,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조기석기자

www.yyg.go.kr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을 만나보십시오

아산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DPF부착지원사업 시행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 기대

아산시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1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DPF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국비 4억 원 등 6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노후 건설기계 42대(엔진교체 37대, DPF 5대)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로 △2004년 이전 제작 △엔진 출력 75kw이상 130kw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엔진출력 75kw 미만은 2006년 제작된 건설기계라 해당된다.

지원액은 지게차의 경우 2~6톤급 936만원에서 최대 1929만원, 굴삭기는 5~14톤급 1299만원에서 최대 2035만원까지다.

매연저감장치(DPF) 지원대상은 05년(Euro3)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으로 유지관리비용을 포함 최대 729만원까지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아산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세외수입 및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주 차량이다.

또한 지원받은 건설기계 엔진 및 매연저감장치(DPF)의 의무 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기간 내 탈거 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계약 후 계약서, 참여신청서 등

의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작성된 서류를 장치제작사에서 아산시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기간 내 일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은 아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 콜센터 및 기후변화대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은/기자

당진시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받아

79명 합격자 배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올해 제1회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1회 검정고시에서 당진시 꿈드림은 83명의 응시자 중 고등학교 졸업 52명, 중학교 졸업 27명으로 총 79명의 전체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날 합격증서 수여식에는 구분취업생학습체육과장이 참석해 합격증서를 수여했으며, 격려사를 통해 "학교밖청소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의 공간'이다.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검정고시 대비반과 함께 취업지원, 자격



증취득, 건강검진, 문화체험활동, 멘토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전화문의 가능하다.

김원호/기자

강릉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를 통한 인적안전망 구축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강릉만들기

강릉시는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2021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하였다.

강릉시는 지역주민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 이·통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 7,066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였으며, 25개소 5,609명의 기관·단체들과 복지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난해 171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올해는 ▲읍면동별 복지업무협약을 1회 이상 체결하기, ▲어려운 이웃 일촌 맺기 활성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용 워크북 제작 배부 및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성 함양, ▲우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포상, ▲강릉 소식지 소개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승훈 복지정책과장은 "강릉시민 한분 한분이 모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바로 신고 하시면 신속한 현장 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동원/기자

유성구, 2022학년도 대학 입시박람회 개최

수험생 특성을 분석해 효과적인 수시지원 전략 제공

대전 유성구가 충남대학교와 함께 오는 7월 3일 지역수험생들을 위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시박람회는 수도권 주요 대학 및 거점국립대학을 비롯한 총 3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입시설명회, ▲대학별 1:1 입시상담 ▲맞춤형 1:1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다양한 입시 정보를 제공한다.

충남대학교(유성구 소재) 백마교양교육관과 인문대학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

한 방역관리를 위해 차수별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5월31일부터 유성구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모집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유성구 교육과학과로 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입시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이번 박람회를 통해 변화된 입시전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성공적인 입시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삼척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확대 추진

올해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폐차 여부 관계없이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삼척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통학용 소형 승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이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고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

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삼척시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순으로 신청을 받아 9천8백만 원을 투입해 대당 700만원씩 총 1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는 보조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삼척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고, 노후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바꿈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원/기자



음성군, 2021년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실시



음성군은 오는 6월 20일까지 관내 한우농가 등, 552농가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는 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인수공통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감염증 조기색출로 동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특정 시기를 정해 추진하는 검사다.

각 읍·면별 담당 공수의사가 채혈하며, 채혈 후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채혈대상은 한우농가 사육농가 중 12개월 이상 암소로 약 8400두다.

이번 채혈 검사 시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항체가 검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농가가 희망할 경우

소 결핵병 검사도 함께 시행한다.군은 검사 결과 양성 개체 발생 시, 살처분과 소독 등 즉각적인 방역 조치를 통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소는 가축시장 또는 농장 간 거래하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브루셀라병을 반드시 검사해 이상이 없는 경우 거래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는 누구나 소의 귀표번호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경제적 손실이 큰 소 브루셀라병 감염증을 신속히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수의 방문 시 채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금산도서관, '어르신 자서전 편찬' 청소년 봉사단 사업설명회 개최

조길형 충주시장이 미래비전 2030을 완성하는 2021년 하반기의 본격적인 설계에 나섰다.

조 시장은 31일 주재한 현안업무 영상회의에서 "오는 6월 한 달을 2021년 상반기의 마무리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의 힘찬 성장동력을 얻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기능별 주요 현안사업들의 추진 현황과 정부예산 확보 상황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와 과수화상병 등 고된 현장 대응에도 공직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며 "잔여 예산 예약제 시행,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단단히 뒷받침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상 속의 방역지침 준수 및 적극적인 백신접종 독려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재차 점검하면서 2021년 하반기에 시민의 안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시장은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지나주 투자유치시민참여단 위촉식을 통해 21명의 뛰어난 인재들이 우리시 경제발전의 큰 몫을 담당하게 됐다"며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와 분야별 전문성 등 참여단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협력을 펼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조길형 시장은 "2021년 하반기에는 미래비전 2030의 완성을 통해 '더 가까이, 충주'의 구체적인 미래상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그 이름에 걸맞게 지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 사업

들뿐 아니라 읍면동 환경정비·일손봉사 등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작지만 중요한 일들의 추진에도 철저히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장흥군 "김정숙 뷰티살롱 원장" 영예의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사)한국뷰티산업개발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제6회 BIS컵 국제 이·미용 경기대회에서 장흥군 김정숙 원장이 대회 최고의 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호남대학교 세계관에서 29일 비대면으로 실시됐으며, 해외와 전국 각지에서 700여 개의 출품작을 미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0여 명의 전문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작품들을 심사했다.

김 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의의 경쟁과 도전을 통해 미용인들의 위상과 자부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며 "오늘의 영광을 모든

미용인들과 함께 나누고 후배 양생에도 힘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원장은 장흥군에서는 최초로 고전머리 기술강사에 임명됐으며, '2017년 전라남도 도지사배' 미용경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8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대회에서는 고전머리 쪽머리 부분 최고인 금상을 수상, '2019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대회에서는 일반부 이브닝 부문에서 최고인 영예의 금상을 수상했다.

김 원장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도 배움의 열망으로 대학원 석사 과정 중에 있으며, 미용인들의 꽃으로 불리는 미용기능장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길/기자



고양시 공무원, '국토정보업무 혁신세미나' 최우수·우수상 수상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2021년 경기도 국토정보업무 혁신세미나'에서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최우수상, 지적연구과제 우수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적제도·지적재조사 분야의 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시·군 공무원 간 정보공유를 통한 지적업무 발전을 위해 매년 해당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사전 심사(30건)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지적 및 지적재조사 우수 연구과제(12건) 발표가 진행됐다.

고양시 토지정보과 안수민 팀장은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무형의 레이저 기준점 개발'에 대해 발표했다. 안 팀장은 각종 토지형질 변

경 등에 취약한 기존 지적기준점 레이저를 이용한 무형의 표지로 대체해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지적연구과제 우수상을 받았다.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안상현 주무관은 '지적재조사 경계디자인을 통한 운영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 주무관은 '공무원이 경계를 직접 디자인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품질도 향상된 실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지적재조사 연구과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사례는 오는 11월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품될 예정이다.

안종봉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충북도 음치현 자연재난과장, 국가재난관리유공훈장 수상

선제적 상황관리,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안정적 추진 등 인정받아

음치현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이 '2021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으로 녹조근정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음치현 과장은 선제적으로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해 재해우려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재해예방사업과 재해복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점을 인정받았다.

음 과장은 1989년 8월부터 현재까지 31년여 동안 주로 재난·도로 분야에서 근무하며 항상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다.

행정 일선에 나가서도 각종 재난에 대비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 데 앞장선 '안전과 수훈'이다.

음 과장과 함께 충북도 자연재난과에서 근무하던 김동순 주무관은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김 주무관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자연재난 상황을 신속하고 탁월하게

운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태풍 등을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 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에 앞장섰으며, 겨울철에는 대설·한파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김 주무관은 현재 안전정책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충청북도는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자연재난 대책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돼 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받는 등 재난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음치현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은 "이 훈장은 그동안 함께 땀 흘린 직원들과 재난 관련 유관기관을 대표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남은 공직생활 동안 안전한 충북도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책임과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최만식/기자



상주시평생학습원 김홍희 팀장 국무총리표창 수상

상주시평생학습원(원장 오은숙) 청소년수련관 김홍희 팀장은 27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여성가족부·대전광역시 주최 "제17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정부 포상 전수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이 상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로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개인, 단체, 기업 등에게 주어지며 김 팀장은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김홍희 팀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안

전건설트 활동하면서 4년 동안 전국 주요 청소년시설에서 자문활동을 하며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수련활동을 조성했다. 또 청소년 잠재력 개발을 위한 리더십 교육,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했다.

김홍희 팀장은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적인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경주시, '경주시문화상' 수상자로 김영제·강석근·최선영·손경호 선정



경주시는 제33회 경주시문화상 수상자로 문화·예술부문 김영제 씨, 교육·학술부문 강석근 씨, 사회·체육부문 최선영 씨, 특별상부문 손경호 씨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상식은 다음달 8일 화랑마을에서 진행될 '제14회 경주 시민의 날'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만원이 각각 전달된다.

'경주시 문화상'은 1989년 첫 시상식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4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문화·예술, 교육·학술, 사회·체육, 특별상 등 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시민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수상자는 경주시와 (재)경주문화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문화·예술부문' 수상자 김영제(현곡면) 씨는 현재 남경주문화연구회 회장으로 신라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다수의 책을 발간했으며 '경주향교지'를 발간해 경주를 널리 알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

'교육·학술부문' 수상자 강석근(용강동) 씨는 30년간 교육계에 헌신한 인물이다. 최근까지 경주행복학교장

으로 활동하며, 한국 고전문학 분야에서 신라와 경주문화에 대한 학술 논문 40여 편을 집필해 경주학과 신라학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사회·체육부문' 수상자 최선영(황오동) 씨는 경상북도 대표선수로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등에 참가해 경주시 체육의 위상을 높인 인물이다. 이후 경주시 불림협회장을 맡으며, 국가대표 선수 발굴과 도민체전 불림부 종합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상부문' 수상자 손경호(경기도) 씨는 경주시 강동면 출생으로 현재 (주)경동홀딩스의 명예회장이다. 고향의 인재 육성을 위해 (재)동암장학회를 설립·운영하면서 경주 출신 대학생들에게 지난 25년 동안 24억 원이 넘는 장학 혜택을 베풀어 출향인의 모범이 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향토 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4명의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기/기자

2021 진주브랜드 작품 창작 공모 '수무바다 흰고무래' 선정

진주 형평운동 주제로 한 극단 '현장'의 마당극

진주시는 지난 28일 「2021 진주브랜드 작품 창작」 공모에 극단 '현장'의 마당극 '수무바다 흰고무래'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당선작인 '수무바다 흰고무래'는 예로부터 수무바다라고 불린 남강백사장을 배경으로 백정(흰 白, 고무래 丁)과 형평운동가 강상호 선생의 만남부터 형평사 창립대회가 열린 날까지 역할극과 놀이형식으로 풀어나가는 마당극이다.

작품에 참여한 김인경 작가는 서울연극제 인기상 수상작인 '염쟁이유씨', 전국 창작 희곡공모 우수상 '모시는 사람들' 등 다수의 극작을 썼으며, 연출은 극단 현장의 고능석 대표가 직접 맡는다.

2021 진주브랜드 작품 창작 공모 사업은 진주의 역사, 문화, 인물 등 진주를 소재로 하는 다양한 주제로 창작작품을 제작하여 진주를 대표하는 공연을 만들고자 시작되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모

를 거쳐 지난 27일 전문가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

당선작은 "진주에서 시작된 인권운동인 형평운동의 가치를 알리고 현대의 인권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진주브랜드 작품 주제로 적절하다"는 평을 받았다.

극단 현장의 고능석 대표는 "진주시에서 처음 공모한 진주 브랜드 작품에 우리 극단의 마당극이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지역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공연으로 찾아뵙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 형평운동의 가치를 시민뿐만 아니라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진주만의 브랜드 공연으로 보여줄 수 있어 의미가 있고, 공연을 통해 인권도시 진주, 문화예술도시 진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당선작은 올해 9~10월경 직접 공연으로 만나볼 수 있다.

최광용/기자



남해군, 코로나 이전의 기억을 되감아본다

뮤지엄남해 6월 전시회 '리와인드', 황미영 작가 초대전 열려

남해군의 문화예술 핫플레이스로 자리잡고 있는 뮤지엄남해(MUSEUM NAMHA)가 6월 27일까지 황미영 작가의 'REWIND'展(다시 듣는 시간들)을 개최한다. 뮤지엄남해는 "코로나로 힘들고 지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 이전의 기억을 되감아보는 시간을 위한 기획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시명인 'REWIND(리와인드)'라는 말 그대로 지난 시간을 되감아 예전의 모습을 추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획됐다. 혹은 인생에서 좋았던 시간에 대한 되감기를 의미한다. 황미영 작가는 "2년이 다 되도록 마스크를 쓰고, 제한된 답답한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그 이전의 시간들을 리와인드 해주고 싶어서 이 전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구작과 신작들이 함께 섞여 있는 이번 전시의 대표작품은 'REWIND'

와 'favorite chair(페이브리트 체어)'이다. 특히 'REWIND'의 그림 속 라디오의 모습에는 비틀즈의 '옐로 서버마린(yellow submarine)'을 되감는 플레이(play) 버튼이 눌러져 있다. "우리는 편안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모두 갖추고 있고 하늘은 푸르고 바다는 초록빛 노란 잠수함 속에서" - yellow submarine의 가사 내용 중 황미영 작가는 "노래 가사처럼 다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평범한 일상 속의 푸른 하늘과 초록나무,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면 좋겠다"는 전시회를 앞둔 소회를 전했다. 기타 전시 내용은 뮤지엄남해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최광용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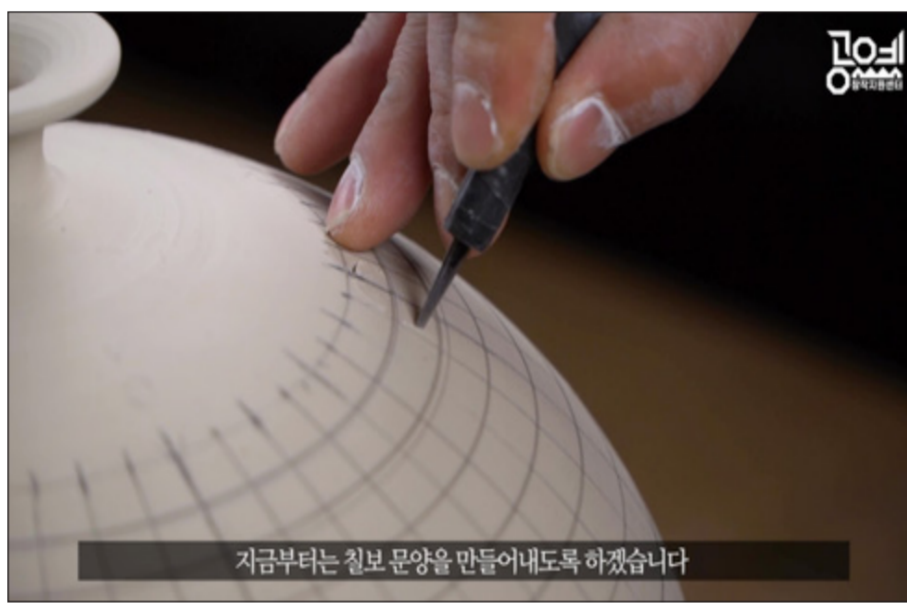
한국도자재단, 공예교육영상 제작사업 참여 공예가 공개 모집

재단, 7월부터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공예교육영상 콘텐츠 제작사업

한국도자재단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가 '공예교육영상 제작사업'에 참여할 공예가 50명을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 '공예교육영상 제작사업'은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예교육 콘텐츠를 제공, 도민들의 코로나19 우울증 극복을 돕고 문화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텐츠 제작 분야는 도자, 목공, 금속, 유리, 공예 디지털 등이다. 참가자격은 공예 관련 분야 5년 이상 활동 경력자다.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공예가 30명, 경기도 외 20명 등 총 5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6월 14일까지 지원서, 강의계획서 등 관련 서류와 30초

이내 교육 시범 영상을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 및 영상 심사를 통해 6월 17일 최종 참여자가 정해진다. 참여자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창작지원금 및 제작된 영상 편집본이 제공된다. 영상 제작은 7월부터 9월 까지로, 제작 완료된 콘텐츠는 7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무료 공개된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도민을 위한 양질의 공예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한다"며 "독창적인 창작 기법과 참신한 교육 아이템 등을 보유한 역량 있는 공예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구미시, 학생들의 꿈과 열정으로 찾아가는 '선주의 열'



구미시는 5월 28일 오후 7시 구미성리학역사관 분관인 야은역사체험관에서 '제1회 선주의 열 역사문화 교육뮤지컬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장세웅 구미시장, 신동식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하여 후원단체인 (사)서산와역사문화연구소 노용순 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출입명부 작성 및 발열체크, 손세정제 사용,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경북 지역 교사들의 모임인 경북교육뮤지컬연구회 핫지컬(Hotjical)에서 기획하고 구미교육지원청의 '모돌림(모두+어울림) 인성교육사업' 지원을 받아 올해 처음 야은역사체험관에서 개최되었다. 핫지컬 소속 차보배 경산서초등학교 교사의 <한 걸음 두 걸음>(뮤지컬 '빨래' OST) 공연을 시작으로, 금오초등학교 뮤지컬 동아리 '스쿨오브뮤지컬'의 <그런가봐>(뮤지컬 '변지점프'를 하다' OST), 옥계중학교 뮤지컬 동아리 '라운'의 <맘마미아>(뮤지컬 '맘마미아' OST) 등 학생들의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뮤지컬 공연이 이어졌다.

역사문화 토크쇼에서는 장세웅 구미시장, 서유진 학생대표와 김찬성 지도교사, 노용순 소장이 공연 제작과정과 '선주의 열'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날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선산초등학교 뮤지컬 동아리 '마마미'의 <노상주 일기> 공연은, 조선시대 선산 출신의 무관(武官) 노상주(盧尙樞, 1746~1829)가 68년의 일생을 기록한 '노상주 일기'를 모티브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이다. 구미시장은 "학생들의 꿈과 선생님들의 열정이 빛어낸 이번 행사를 통해 구미의 문화는 구미 시민의 손으로 만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성리학역사관에서는 올해 하반기 기획전시로 '고산 황기로 탄생 500주년 기념展'에 이어 9월경 '노상주 일기展'을 개최하여 일기 원본 일부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세기기자

인천시립박물관 초등체험프로그램 '상설체험교실' 1년 여 만에 기지개

인천광역시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작년 2월 이후 중단됐던 인천시립박물관 상설체험교실의 운영을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상설체험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민화·길쌈·도자기·전통인쇄·청동기·탁본 등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주 단위로 순환 운영한다. 6개의 체험프로그램을 모두 완료한 초등학생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또한 시립박물관 상설체험교실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 교육과정을 거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설체험교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56명으로, 모두 박물관에서 열리는 기본 교육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수습봉사 및 시연평가를 거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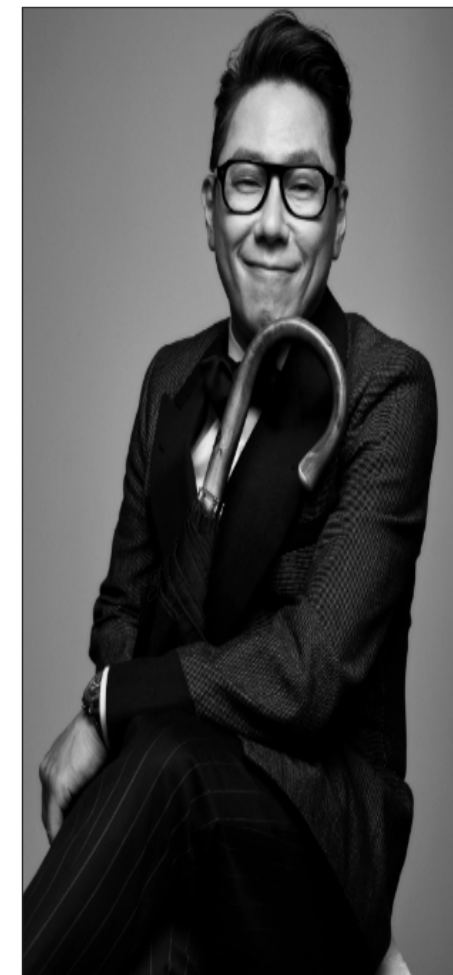
김중남기자



포항해변 라이브 바(BAR)에서 즐기는 특별한 여행

JTBC 새 예능프로그램 '바라던 바다' 포항편 촬영...오는 6월 29일 첫방 예정

최근 방송 프로그램 촬영지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경북 포항에서 대한민국 최고 인기 연예인들의 대거 출연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JTBC 신규 예능프로그램 '바라던 바(BAR)'의 촬영이 진행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라던 바(BAR)'는 아름다운 포항 해변을 배경으로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바(BAR)'를 설치해 시청자들에게 음악과 어우러진 낭만 넘치는 특별한 여행을 선물함으로써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힐링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25일부터 나흘간 동해면 흥환리 해변을 주무대로, 죽도시장, 철길숲, 장길리 낚시공원 등에서 촬영이 진행된 '바라던 바(BAR)'는 출연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해변에 머물며 라이브 바(BAR)를 운영하면서 직접 선곡한 음악과 직접 만든 요리를 선보이며 그 곳을 찾은 손님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담아낼 예정이다. 특히 '특별한 바(BAR)'가 들어선 촬영 주무대인 포항시 동해면은 호미반도해안둘레길, 연오랑세오녀테마파크, 흥환리 해수욕장 등 지역 대표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미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촬영 소식으로 다시 한 번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포항시민들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방영되는 본 프로그램이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경우 대한민국 대표관광지 포항 역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우리 포항은 천혜의 자연 경관과 많은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최근 드라마, 영화 등의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는 모든 촬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화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포함만이 가진 매력의 더욱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긴어게인2, 3'의 노래는 '비긴어게인 코리아'의 송광중 PD가 연출을 맡고 윤종신, 김고은, 이지아, 이동욱, 윤유, 로제, 이수현 등이 출연하는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 '바라던 바(BAR)'는 똑같은 일상을 구원할 시원한 이야기를 담아 6월 29일 밤 9시에 시청자들의 안방을 찾아가게 예정이다.

김세기기자

동학농민혁명 127주년 기념 특별공연 '갑오년 만석씨' 공연

6월 5일~6일 오후 4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공연



동학농민혁명 127주년을 기리는 특별공연 '갑오년 만석씨'가 오는 6월 5일부터 6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펼쳐진다. 상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혀온 소리극 '갑오년 만석씨'(작가 사성구, 연출 주호중)는 정음시와 시립국악단이 공동 기획·제작했다. 이 작품은 동학농민혁명의 회오리 속에 어찌다 혁명군이 된 백성 만석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가슴 뜨겁게 몰아치는 웃음과 감동의 대서사이다. 동학농민혁명의 회오리 속에 천민 백성 만석과 녹두장군 전봉준의 가

슴 뜨거운 감동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공연은 8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전 좌석 5000원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은 50% 할인받을 수 있고, 초·중·고 학생은 30% 할인된다. 입장권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정음시립국악단장 주호중 연출은 "세계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프랑스 혁명을 꽃피운 뮤지컬 레미제라블처럼 이 작품이 동학농민혁명의 혁신적 공연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대동그룹' e-모빌리티 신사업 본격 시동...2024년까지 대구국가산단내 1,214억원 대규모 투자!

국내 대기업들과 손잡고 농업용·비농업용 모빌리티 시장 진출



대구시는 5월 31일 오전 11시 20분 별관 대회의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대동 원유현 총괄사장, ㈜대동모빌리티 이승원 대표이사를 비롯해 송재호 KT 부사장, 여준구 KIRO(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김익재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AI·로봇연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동그룹의 e-모빌리티 신사업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대동그룹은 e-모빌리티 신사업을 전담할 계열사인 ㈜대동모빌리티를 통해 2024년 10월까지 1,214억원을 투자하고 협력사 포함, 총 69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대구국가산업단지(달성군) 내 영커

부지 102,265㎡(30,935평)에 e-바이크, AI로봇 모빌리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모빌리티 제조공장을 건립해 ㈜대동모빌리티의 기존 전동화 차량 제품과 함께 첨단 스마트화 제품의 생산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대동그룹은 올 8월까지 공장 설계를 마치고 10월 착공에 들어가 2022년 6월 준공 후 9월부터 모든 제품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를 통해 직접고용 237명, 협력사 고용 460명 등 총 697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6,930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대동과 협력사를 합쳐 1조 540억원의 매출과 8,19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일 협약식에 참석한 KIRO, KIST 정부출연연구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AI·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용 모빌리티인 전기 운반차(Utility Vehicle), 미래농업을 대비한 농업용 다목적 차량(Multi Platform), 북미·유럽 시장을 겨냥한 로봇 잔디깎기 등의 제품 개발을 착실히 준비중으로 제품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비농업용 모빌리티 제품인 'e-바이크'는 75년 역사를 가진 대동의 완성차 생산기술과 확고한 위상의 안정된 매출처를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한 바이크를 활용한 배달·물류시장 진출에 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국내 최고 ICT기업인 KT와 협력 중인 'AI로봇 모빌리티'는 분해 조립형·원격조정·실내자율주행 등 차량 내 보관·이동과 이용 편의성 극대화로 관광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내연에 의료기기 GMP인증, 로드쇼 등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개념인 공유방식의 교환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e-바이크 및 AI로봇 모빌리티 생산, 충전기 개발·보급, 거점 충전소 및 판매센터 운영 등 종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편리성과 시너지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에게 180억원 규모의 R&D자금을 지원해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만큼, 대구시는 이에 부응해 협력사의 이전 투자 협의와 산업

생태계 조성, 상생형일자리 모델로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원유현 ㈜대동 총괄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미래농업 사업 원년으로 스마트농기계,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고 미래농업 기업으로서의 성장 발전을 구축할 것이라며, 그 첫 번째가 모빌리티 생산을 위한 공장 건립이며, 지역의 협력사와 로봇 및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해 대구를 모빌리티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미래농업을 리딩하는 국내 1위 대동그룹의 e-모빌리티 신사업 투자는 대구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퍼스널 모빌리티 선도시로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대동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지역업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투자지원 및 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대동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농업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 올 4월 대동공업에서 사명을 변경하고, ▲자율농기계, 농업용 로봇 등 '스마트 농기계', 연계 미래사업으로 ▲새로운 이동·운송수단인 '스마트 모빌리티', ▲정밀농업 솔루션을 기반으로 무인 자동화 운영의 '스마트팜'을 3대 핵심 사업으로 방향을 정하고, 기업의 체질 개선과 본격적인 변화를 역동적으로 추진 중이다.

남궁영기기자

세종시, '존폐기' 여행업계에 공유사무실 무상지원

세종관광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7곳 공모...6월 1~8일 접수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가 코로나19로 존폐의 기로에 선 관내 여행업계를 지원하고자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관광비즈니스센터 일부를 공유사무공간으로 제공한다.

이 사업은 여행업의 사업유지를 위해 고정비 부담이 가장 큰 업무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 관광협회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총 7개 여행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세종관광비즈니스센터 공유사무실이 무상으로 지원되며, 기존 입주기업과 함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경영컨설팅, 관광기업 간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제공된다.

시는 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해 여행업계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입주기간 연장 및 공유사

무실 추가 조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6월 1일부터 8일까지며,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세종시 소재 여행업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비율이 높은 업체 순으로 선발한다.

제출서류는 세종시 관광협회가 관내 여행업체에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관광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구 시 관광문화재과장은 "이번 공유사무실 무상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업계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대구시 'K-바이오 랩허브'유치에 박차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유치전략 고도화 회의 개최



대구시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함께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지역 유치를 위한 전략 고도화 토론회'를 5월 27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이영호 이사장도 "대구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바이오벤처의 창업요람으로 K-바이오 랩허브가 대구첨복단지 내 유치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를 배출한 미국 보스턴 바이오스타트업 지원기관인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랩센트럴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500억원을 포함한 총 3,350억원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후보지를 선정 중이며 7월 중 최종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대구시가 지역의원실 및 대구첨복단지 등 지역 유관기관·대학 관계자 등과 진행한 전략 수립의 중간 점검 형태로 이루어졌다.

남궁영기기자

대구시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함께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지역 유치를 위한 전략 고도화 토론회'를 5월 27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이영호 이사장도 "대구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바이오벤처의 창업요람으로 K-바이오 랩허브가 대구첨복단지 내 유치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를 배출한 미국 보스턴 바이오스타트업 지원기관인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랩센트럴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500억원을 포함한 총 3,350억원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후보지를 선정 중이며 7월 중 최종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대구시가 지역의원실 및 대구첨복단지 등 지역 유관기관·대학 관계자 등과 진행한 전략 수립의 중간 점검 형태로 이루어졌다.

남궁영기기자

코로나 경제방역 나선 경기도, 6월 1일부터 더 강력해진 소비지원금 2탄 시행

작년 1차 소비지원금보다 강력해져(1차 : 20만 원 사용(충전) 시 소비지원금 3만 원)

경기도가 올 6월 1일부터 경기지역화폐 20만 원 충전으로 무려 27만 원어치를 쓸 수 있는 '소비지원금 2탄'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소비지원금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제안으로 시작한 경기도형 경제방역 대책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 소비 진작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소비지원금 2탄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 코로나19 장기화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1차 소비지원금보다 더 강력해진 혜택으로 돌아왔다.

올해 소비지원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며, 추가 지급되는 소비지원금 금액이 지난해 1탄 3만 원(소비 금액의 15%)에서 5만 원(소비 금액의 25%)으로 대폭 확대됐다.

첫 번째 방식은 지역화폐 20만 원 충전 시 기본 10% 인센티브(2만 원)에, 3개월 내에 충전한 20만 원을 모두 소비할 경우 25%에 해당하는 5만 원의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생애 최초로 지역화폐를 1회 20만 원 이상 충전한 신규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소비 여부 상관없이 10% 기본 인센티브(2만 원) 외에 5만 원의 소비 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즉, 20만 원 충전으로 기본 인센티브 10%(2만 원)에 소비 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 25%(5만 원)를 더해 최대 35%(7만 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받아 총 27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번 소비지원금은 예산(총 620억 원)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를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가로 지급받는 소비지원금 5

경기도 소비지원금을 받으려면?

경기도민이라 행복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드립니다.
(1인 1회 지급)

생애 최초 충전자	기존 사용자
<p>20만원 이상 충전하면 5만원 소비지원금 + 2만원 인센티브 (20만원 충전 시) 최대 7만원</p>	<p>20만원 이상 소비하면 5만원 소비지원금 + 2만원 인센티브 (20만원 소비 시) 최대 7만원</p>
<p>※ 생애 최초 충전자는 1회에 20만원 이상을 충전해야 소비지원금이 지급됩니다.</p>	<p>※ 기존 사용자는 21.06.01 이전에 충전한 지역화폐를 사용해도 소비지원금이 지급됩니다.</p>

만 원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한정판 지역화폐이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요건 충족자에 대해 정산작업 후 10월 26일, 11월 26일, 12월 28일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됐던 것과 달리, 지급요건(20만 원 이상 소비) 충족 즉시 실시간으로 소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소비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카드형 지역화폐 미사용 지역인 성남·시흥·김포는 20만 원 이상 소비 후 운영사의 지급요건 충족자 정산시간을 고려, 주 1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6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8월 예상)까지 20만 원 이상을 지역화폐로 소

비해야 한다. 단, 생애최초 충전자는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20만 원을 모두 지출해도 중복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연매출 10억 이하의 매장 및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류광영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난해 1차 소비지원금에 대한 설문조사 당시 소비지원금 참여자의 94%가 잘했다고 응답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보건방역 만큼 중요한 것이 경제방역인 만큼, 보다 강력해진 소비지원금으로 보다 많은 도민과 소상공인들께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최근수기자

'충남형 배달앱' 수수료 0%대로 더 낮춘다

충남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비자에게도 득이 되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수수료 0%대 배달앱을 선보인다.

도는 오는 6월부터 계통·서산·홍성 3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충남형 민간 협력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충남형 민간 협력 배달 서비스는 도내 지역화폐와 연계한 배달앱을 구축해 주문·결제 수수료를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춰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을 늘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시행을 위해 도는 그동안 충남형 민간 협력 배달 서비스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도·시군·한국외식업중앙회충남도지회·사업자 간 업무 협약, 조폐공사 협의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0%대 배달 수수료는 조폐공사의 지역화폐 연계 협의를 통해 성사됐다.

충남형 민간 협력 배달 서비스를 통해 결제 방식을 모바일(간편결제) 지역화폐로 선택해 주문하면 결제 수수료 없이 주문 수수료만 0% 발생한다.

카드(신용, 체크 등) 이용 시에는 결제 수수료 0.8% 주문 수수료 0.9%로 총 1.7%의 배달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는 평균 수수료가 10~18%에 달하는 국내 유명 배달업체들과 2%대인 타 지자체 공공 배달앱보다 낮은 전국 최저의 배달 수수료이다.

충남형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1000만 원 기준으로 민간의 배달 수수료(10.1~18.3%) 및 별도 부가 수수료(등특비·광고비 등)와 비교했을 때 166~171만 원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화폐 구매 시 10% 할인, 별도 추가 할인쿠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소비자에게도 큰 장점이 있다.

도는 가맹점 모집 및 프로그램 설치 등 사전 작업 일정을 고려해 다음달부터 시범지역을 우선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0%대 배달 수수료를 제공하는 충남형 민간 협력 배달 서비스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바일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충남형 배달앱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DL이앤씨(DL E&C)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5월 분양

연천이 기다려온 최초의 프리미엄 라이프

▶ 연천이 처음 만나는 e편한세상 C2 House,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 눈길

▶ 지하철 1호선 연천역(예정), 연천BIX(은통산단) 등 인근 개발호재 풍부

▶ 연천 내 최중심 입지,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

[문화매일=최만식 기자] DL이앤씨(디엘이앤씨)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일원(옥산지구 1블록)에서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을 5월 중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3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99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전용면적 별로 △59㎡A 43가구 △59㎡B 39가구 △74㎡A 86가구 △74㎡B 37가구 △84㎡A 206가구 △84㎡B 88가구로 구성된다.

■ 연천군 최초의 TOP브랜드(민간기준) 아파트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연천군 내에서 3

년만에 선보이는 단지다. 특히 1군 건설사의 민간분양은 이번 DL이앤씨의 물량이 최초인 만큼 인근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DL이앤씨의 e편한세상 브랜드는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분양 성공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달 가평에서 DL이앤씨 출범 후 처음으로 선보인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계약 4일만에 완판됐다. 같은 달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청약 접수를 진행한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도 영종 지역 최초로 청약통장이 1만건 이상 접수되며 브랜드 위상을 증명했다.

■ DL이앤씨의 역량이 집중된 최고 수준의 평면 및 단지 설계 적용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은 국내 TOP 브랜드 아파트에 걸맞는 최고의 평면 설계와 커뮤니티, 조경 시설 등이 적용된다. 우선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특화 평면인 'C2 하우스'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급변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주

거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새로운 주거 플랫폼이다. DL이앤씨는 수요자의 니즈에 따라 자유롭게 구조를 변경할 수 있고 수납이 극대화되는 공간 설계로 입주자들에게 최적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DL이앤씨의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의 공기까지 관리해 단지 전체를 아우르며 청정환경을 조성한다. 세대 내부에는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실내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환기와 공기정정 시스템이 가동되어 24시간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한다. 단지 외부에는 미세먼지 상태를 알리는 웨더스테이션과 미스트 분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천군 최상의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피트니스, 스크린 골프연

습타석(4타석 적용)을 비롯해 라운지 카페, 독서실, 스테디룸, 어린이집, 키즈스테이션, 경로당 등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커뮤니티가 설치된다.

■ 지하철 1호선 연천역,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등 개발호재 풍부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 인근으로 다양한 개발호재가 들어설 예정으로 추후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오는 2022년 지하철 1호선 연천역이 연장돼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개발로 인근 배후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동두천~연천 경원선 전철연장사업은 동두천역에서부터 연천역까지 총 20.8km를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2022년 개통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지하철 1호선이 연장되면 연천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약 40분, 서울 북부지역까지 약 1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호

선 연장 덕택 GTX C노선이 개통될 경우 서울 강남까지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근로자 복지, 기업지원시설 등을 갖춘 총 사업비 1534억 총면적 60만여㎡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총 7223억원의 경제적효과와 2161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 인프라 풍부한 연천 중심 입지에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 주변은 연천 최고 수준의 풍부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에 연천초, 연천중, 연천고 등 각급 학교가 위치해 교육 환경이 풍부하다. 연천군청, 연천군법원과 연천공영버스터미널 등 다양한 공공시설과 편

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연천 어린이공원, 옥산근린공원, 현가근린공원, 차탄천 등 입주민들의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 망곡산 체육공원, 연천공설 운동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까지 갖춰져 있다.

분양 관계자는 "연천 최초의 1군 TOP 브랜드에 걸맞게 인근 지역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단지가 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내에서 희소성 높은 비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만큼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 본격적인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76-12번지에 조성되며 5월 중 개관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코로나 여파로 주택전시관을 찾기를 꺼리는 소비자들을 위해 사이버주택전시관 운영도 병행을 준비 중이다.

(분양 문의 : 1833-4007)

최만식기자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